

친구와의 교제 시에 35.3%, 이웃과의 관계에서 48.3%, 직장에서 38.9%, 자녀의 학교생활 45.2%, 자녀의 친구관계 42.1%, 관공서 등에서 21.1%의 응답자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여 한부모가 된 이후 다른 요소들 보다 이웃과의 관계와 학교, 보육시설 등 자녀의 생활과 관련하여 편견과 차별을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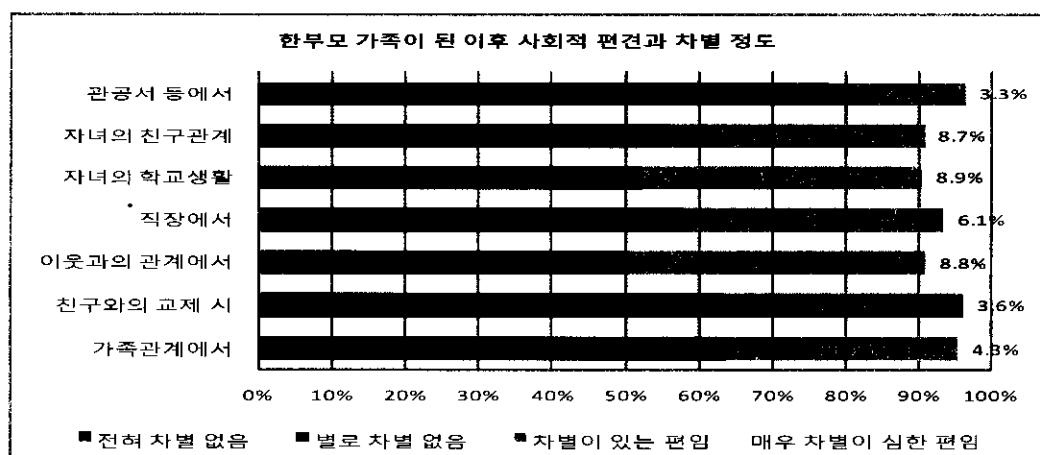
〈표 4-14〉 한부모 가족이 된 이후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도

(단위 : 명, %)

가족관계에서	118	20.5%	240	41.7%	178	30.9%	25	4.3%	15	2.6%
친구와의 교제 시	102	17.7%	247	42.8%	183	31.7%	21	3.6%	24	4.2%
이웃과의 관계에서	76	13.2%	204	35.4%	228	39.5%	51	8.8%	18	3.1%
직장에서	73	12.8%	234	41.1%	187	32.8%	35	6.1%	41	7.2%
자녀의 학교생활	57	9.9%	228	39.8%	208	36.3%	51	8.9%	29	5.1%
자녀의 친구관계	64	11.1%	243	42.3%	192	33.4%	50	8.7%	26	4.5%
관공서 등에서	110	19.3%	311	54.7%	101	17.8%	19	3.3%	28	4.9%

〈그림 4-15〉 한부모 가족이 된 이후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도

(단위 : %)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정도를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 교제시, 이웃과의 관계, 관공서 등 많은 영역에서 미혼부모가 편견과 차별을 가장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5〉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족이 된 이후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도

(단위 : 명, 평균)

혼 인 상 태	사별	59	2.07	2.23	2.29	2.26	2.40	2.33	2.02
	이혼	394	2.18	2.18	2.43	2.32	2.44	2.41	2.01
	미혼부모	30	2.31	2.28	2.50	2.09	2.22	2.16	2.27
	p-value		.711	.765	.733	.609	.402	.508	.153

주 : 4점 척도, 높을수록 차별을 크게 느낌

3. 가족관계와 부양에 관한 사항

1) 자녀 양육

조사대상 한부모들이 양육하는 자녀는 응답자 전체의 46.9%가 2명이며 다음은 1명 43.3%, 3명 7.8%,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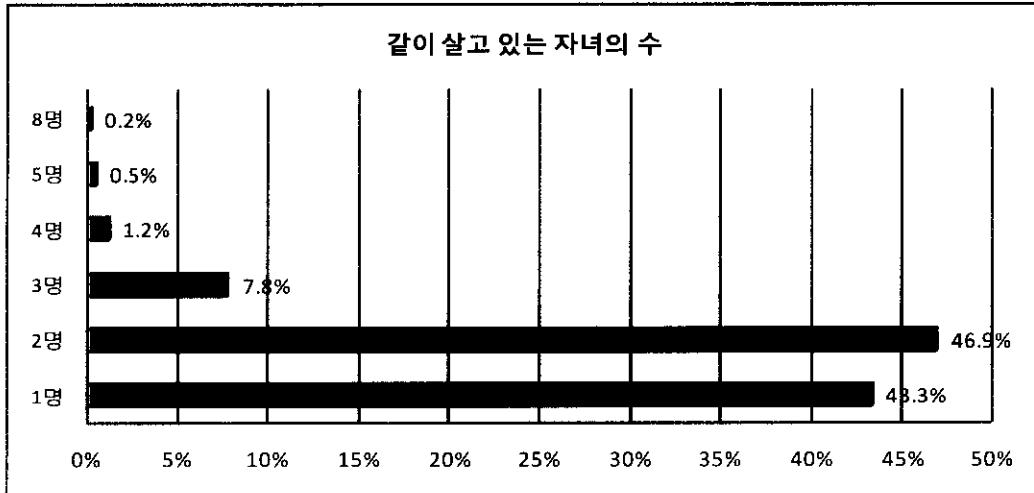
〈표 4-16〉 같이 살고 있는 자녀의 수

(단위 : 명, %)

같이 살고 있는(양육하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1명	254	43.3%
	2명	275	46.9%
	3명	46	7.8%
	4명	7	1.2%
	5명	3	.5%
	8명	1	.2%
	합계	586	100%

〈그림 4-16〉 같이 살고 있는 자녀의 수

(단위 : %)



한부모가족의 자녀돌봄 실태를 자녀의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미취학 자녀의 경우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57.6%, 사설학원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4.2%로 시설보육이 61.8%로 시설 보육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15.8%,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도 13.9%로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1.8% 있었다.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시설보육이 82.2%, 한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 8.7%,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7.7%임에 비해 충북은 시설보육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접돌봄이 높은 편이다.

한편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전체 미취학 아동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69.6%, 취업모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24.9%,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33.9%, 기관이용이 33.0%임에 비해 한부모 가족은 상대적으로 기관을 이용하거나 돌봄공백의 문제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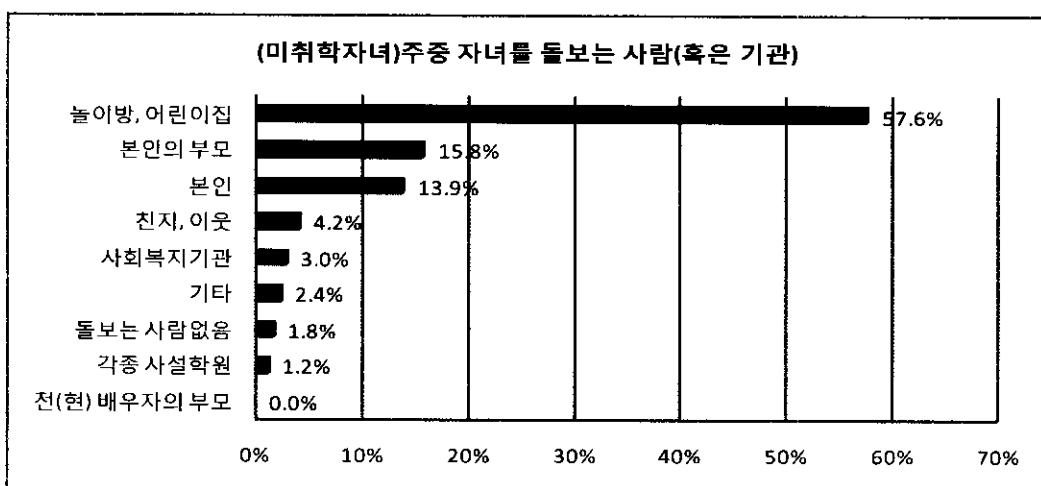
〈표 4-17〉 미취학 자녀의 돌봄 실태

(단위 : 명, %)

낮에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본인	23	13.9%
	본인의 부모	26	15.8%
	전(현) 배우자의 부모	0	0.0%
	친지, 이웃	7	4.2%
	돌이방, 어린이집	95	57.6%
	사회복지기관	5	3.0%
	각종 사설학원	2	1.2%
	돌보는 사람없음	3	1.8%
	기타	4	2.4%
	합계	165	100%
(혹은 기관)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다	19	21.8%
	거리가 너무 멀다	5	5.7%
	비용이 너무 비싸다	26	29.9%
	아이를 성의없이 돌본다	8	9.2%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13.8%
	저녁을 제공하지 않는다	10	11.5%
	기타	7	8.0%
	합계	8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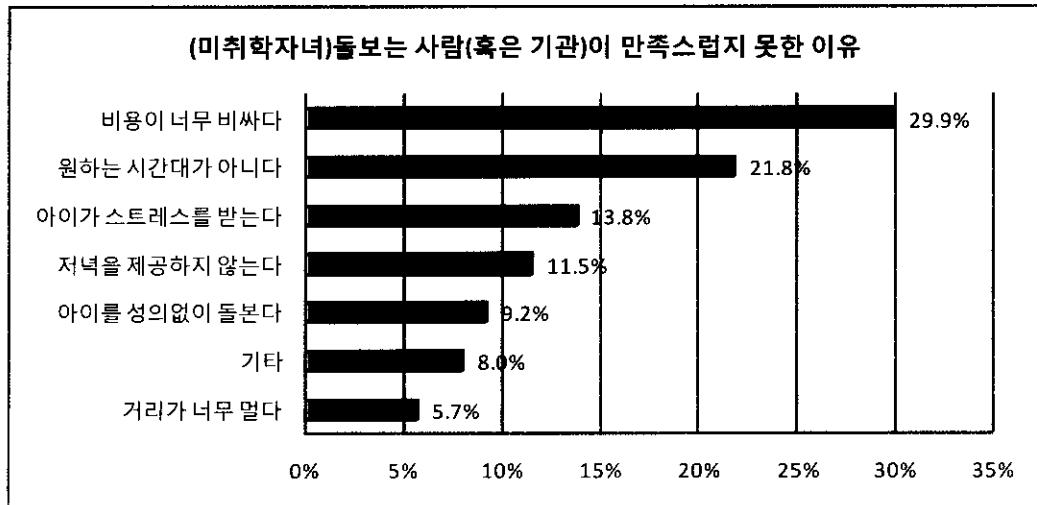
〈그림 4-17〉 (미취학 자녀)주중 자녀를 돌보는 사람(혹은 기관)

(단위 : %)



〈그림 4-18〉 (미취학자녀)돌보는 사람(혹은 기관)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단위 : %)



한편, 한부모의 기관이용률이 이와 같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직접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돌보는 사람 또는 기관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도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다’가 21.8% 순으로 응답하여 관련 돌봄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시설 운영방식, 비용 등의 구조적 요인이 수요자들의 서비스 및 시설 접근성을 여전히 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시설 보육이 장시간근로나 일시보육 등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긴급 상황시에 한부모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돌봄지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은지 외, 2012)

〈표 4-18〉 학력·소득별 미취학 자녀의 돌봄 실태

(단위 : 명, %)

학력	중졸 이하	16	18.8	6.3	0.0	6.3	62.5	6.3	0.0	0.0	0.0
	고졸	82	17.1	19.5	0.0	6.1	50.0	1.2	1.2	2.4	2.4
	대재~대졸	61	8.2	14.8	0.0	1.6	68.9	3.3	0.0	1.6	1.6
	대학원이상	3	33.3	0.0	0.0	0.0	33.3	0.0	33.3	0.0	0.0
	100만원미만	51	23.5	15.7	0.0	5.9	41.2	5.9	2.0	5.9	0.0
소득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75	8.0	16.0	0.0	2.7	70.7	0.0	1.3	0.0	1.3
	200만원이상	12	8.3	25.0	0.0	8.3	58.3	0.0	0.0	0.0	.057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실태의 경우, 가장 많은 48.3%가 본인이나 조부모, 친인척이 직접 돌본다고 대답하여 미취학자녀에 비해 부모 및 조부모, 친인척의 돌봄 참여가 다소 많았다. 다음은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21.3%로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돌봄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기관, 학원 등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26.1%였다.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6.0%가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고 응답하였고 다음 ‘거리가 너무 멀다’ 20.5%,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다’ 19.2% 순이었다.

〈표 4-19〉 초등생 자녀 방과후 돌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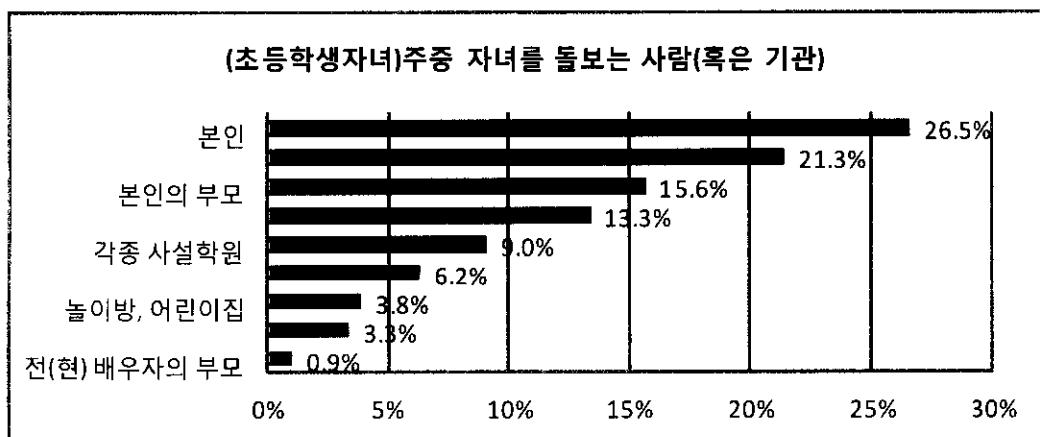
(단위 : 명, %)

낮에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본인	56	26.5%
	본인의 부모	33	15.6%
	전(현) 배우자의 부모	2	0.9%
	친지, 이웃	13	6.2%
	놀이방, 어린이집	8	3.8%
	사회복지기관	28	13.3%

낮에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각종 사설학원	19	9.0%
	돌보는 사람없음	45	21.3%
만약 돌보는 사람(혹은 기관)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기타	7	3.3%
	합계	211	100%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다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다	14	19.2%
	거리가 너무 멀다	15	20.5%
비용이 너무 비싸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19	26.0%
	아이를 성의없이 돌본다	8	11.0%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9	12.3%
	저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2.7%
기타	기타	6	8.2%
	합계	7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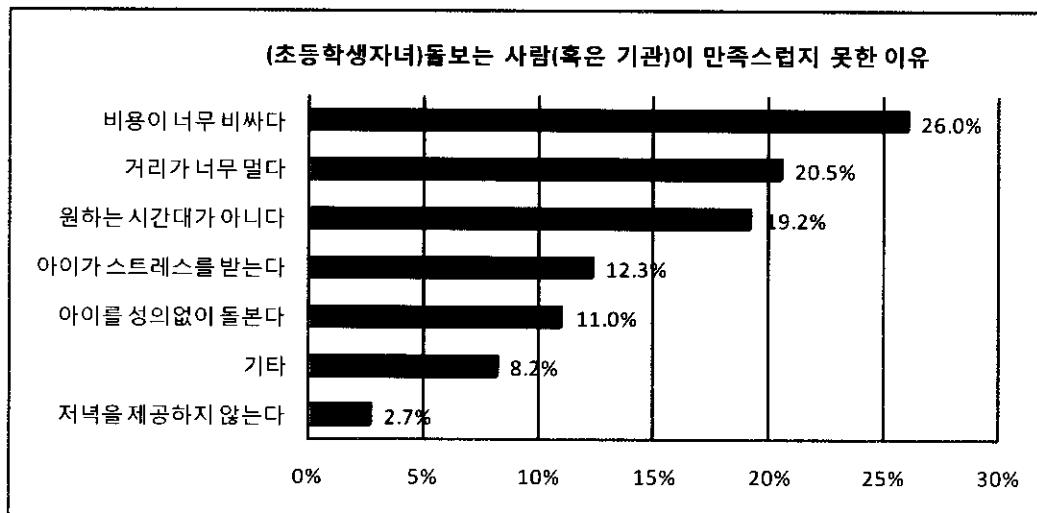
(그림 4-19) (초등학생자녀)주중 자녀를 돌보는 사람(혹은 기관)

(단위 : %)



〈그림 4-20〉 (초등학생자녀)돌보는 사람(혹은 기관)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단위 : %)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89.6%)가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응답자의 73.6%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조사」에 의하면 충북 중학생 사교육참여율은 64.1%, 고등학생 사교육참여율은 40.2%임에 비해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참여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20〉 중고등학생 학교생활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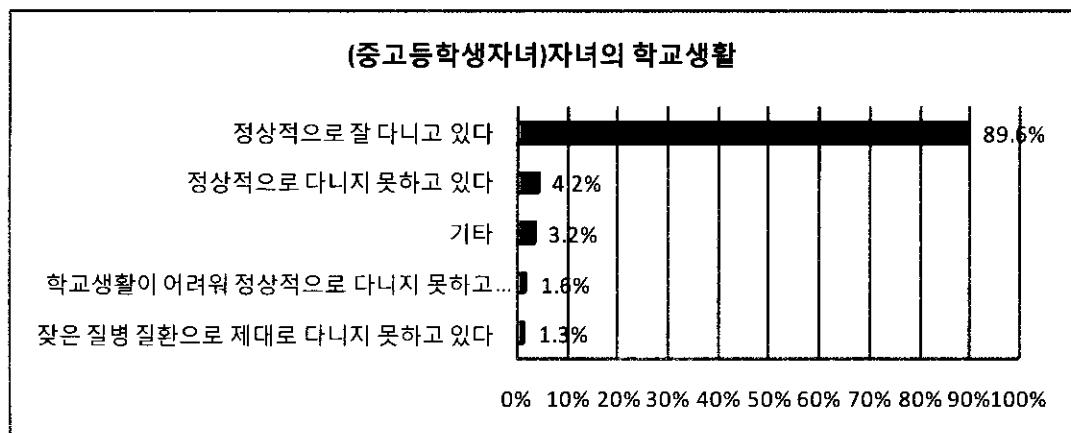
(단위 : 명. %)

자녀의 학교생활은 어떨습니까?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다	277	89.6%
	잦은 질병 질환으로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	4	1.3%
	학비를 댈 수 없거나 당장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	13	4.2%
	학교생활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	5	1.6%
	기타	10	3.2%
합계		309	100%

댁의 자녀 중 사교육을 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	75	26.4%
	없다	209	73.6%
	합계	284	100%

〈그림 4-21〉 (중고등학생자녀)자녀의 학교생활

(단위 : %)



〈그림 4-22〉 (중고등학생자녀)자녀의 사교육 유무

(단위 : %)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높게 드러나고 있어 비용 문제가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1〉 학력·소득수준별 중고등학생자녀 사교육 참여 유무

(단위 : 명, %)

학력	중졸 이하	36	8.3	91.7	0.003
	고졸	193	26.9	73.1	
	대재~대출	50	36.0	64.0	
	대학원이상	2	100.0	.0	
소득	100만원미만	77	15.6	84.4	0.003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55	31.0	69.0	
	200만원이상	8	62.5	37.5	

2)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전 연령대에 걸쳐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교육비부족’이 6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절대적인 시간부족’ 15.6%, ‘학습지도 부족’ 10.0%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비 부족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 잡고 연령이 낮은 미취학자녀일수록 절대적 시간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습지도 부족과 관련한 어려움은 초등학생자녀를 둔 한부모들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다.

〈표 4-22〉 자녀양육의 어려움

(단위 : 명. %)

미취학	159	50.3	2.5	28.3	2.5	1.9	7.5	3.8	3.1	
초등학생	182	65.4	1.6	12.1	2.2	3.8	12.6	1.6	0.5	0.000
중고등학생	228	71.9	4.4	9.6	0.4	2.2	9.6	1.3	0.4	
합계	569	63.8	3.0	15.6	1.6	2.6	10.0	2.1	1.2	

집단별로는 특히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교육비 부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학습지도부족'과 '자녀의 반항'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녀를 돌볼 시간의 절대적 부족'에 대해 높게 응답하여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비해 '자녀와의 대화단절'과 '학습지도 부족'이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부자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못지 않게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은 자녀의 연령이나 성장단계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또한 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주기와 필요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양육비, 교육비 지원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와 함께 미취학자녀 양육 시에는 양육, 교육 관련 정보 제공이나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을, 학령기 단계에는 자녀 진로지도나 부모-자녀 관계 지원, 부모역할 지원,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때 한부모 가족 내에서도 돌봄영역에 더 취약한 집단, 예를 들어 기타 가족구 성원과 함께 동거하는 않는 부자가족 등과 같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김은지 외, 2012)

3) 양육에 대한 생각

현재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을 항목별로 질문한 결과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38.2%)이 그런편이라고 응답한 비율(19.7%)보다 높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62.6%가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는 편이며, 67.1%가 자녀가 방과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부모역할에 대한 대체적인 노력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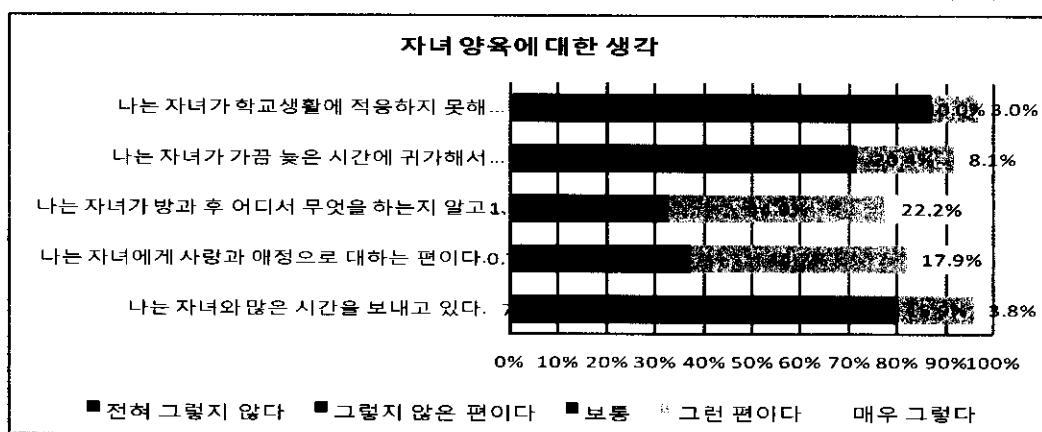
〈표 4-23〉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42	7.2%	180	31.0%	244	42.1%	92	15.9%	22	3.8%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는 편이다.	4	0.7%	29	5.0%	184	31.7%	259	44.7%	104	17.9%
자녀가 방과 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9	1.6%	37	6.6%	139	24.7%	253	44.9%	125	22.2%
자녀가 가끔 늦은 시간에 귀가해서 걱정스럽다.	133	23.8%	128	22.9%	138	24.7%	114	20.4%	45	8.1%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걱정스럽다.	144	25.7%	179	32.0%	164	29.3%	56	10.0%	17	3.0%

〈그림 4-23〉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단위 : %)



성별 자녀양육에 대한 각 항목의 생각들을 5점 척도로 비교해 살펴보면, 한부보다는 한모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는 편이다’, ‘자녀가 방과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걱정스럽다’는 응답에는 한부가 한모보다 그렇다고 응답하여, 부자가족이 모자가족보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24〉 성별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평균)

남성	63	2.53	3.35	3.44	2.55	2.41
여성	541	2.81	3.79	3.84	2.67	2.32
p-value		.027	.000	.001	.463	.516

4)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욕구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욕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3.1%가 ‘직접적인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수당 확대’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으로 19.4%가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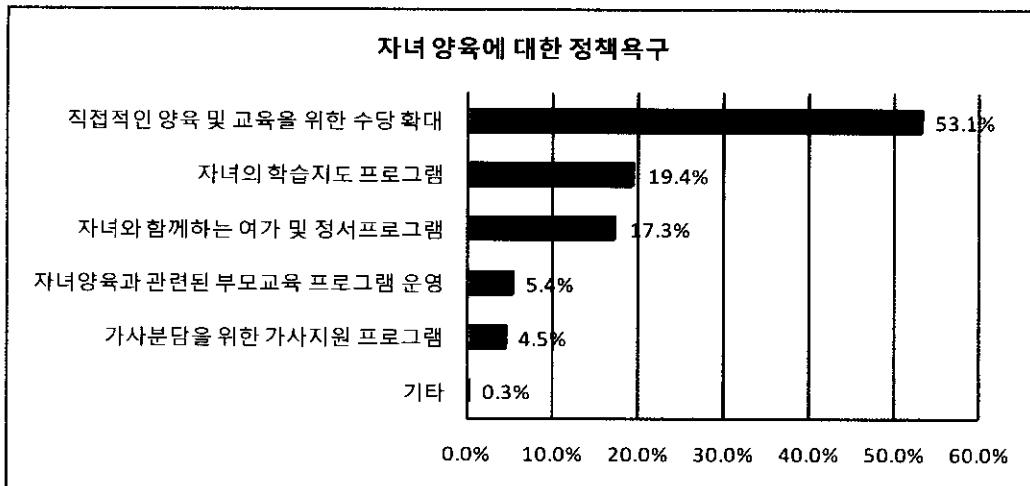
〈표 4-25〉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욕구

(단위 : 가구, %)

직접적인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수당 확대	304	53.1%
자녀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111	19.4%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 및 정서프로그램	99	17.3%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31	5.4%
가사분담을 위한 가사지원 프로그램	26	4.5%
기타	2	.3%
합계	573	100%

〈그림 4-24〉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욕구

(단위 : %)



전반적인 정책요구도는 ‘직접적 양육과 교육을 위한 수당확대’, ‘자녀 학습지도 프로그램’ 순으로 높게 드러나지만 특성별로 상대적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24〉와 같다. 먼저 성별로 한부는 가사분담을 위한 가사지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수당 확대에 대한 요구가 한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저학력 한부모일수록 ‘자녀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고학력일수록 ‘직접적인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수당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자녀 학습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표 4-26〉 특성별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욕구

(단위 : 가구, %)

성별	남성	61	13.1	18.0	3.3	6.6	57.4	1.6	0.365
	여성	512	17.8	19.5	5.7	4.3	52.5	0.2	

학력	중졸 이하	62	14.5	24.2	8.1	8.1	43.5	1.6	0.316
	고졸	344	19.2	19.5	4.7	3.5	52.9	0.3	
	대학~대학원	149	16.1	16.8	5.4	5.4	56.4	0.0	
	대학원이상	10	0.0	0.0	10.0	10.0	80.0	0.0	
어린자녀	미취학	161	18.6	14.3	9.9	5.0	51.6	0.6	0.122
	초등학생	186	15.6	19.4	3.2	5.4	56.5	0.0	
	중고등학생	226	17.7	23.0	4.0	3.5	51.3	0.4	
	성인자녀	0	0.0	0.0	0.0	0.0	0.0	0.0	
소득	100만원미만	158	18.4	20.3	4.4	4.4	51.9	0.6	0.645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95	16.6	18.0	5.8	4.1	55.6	0.0	
	200만원이상	23	17.4	13.0	8.7	13.0	47.8	0.0	

4. 취업, 소득 등 경제상태

1) 경제활동 상태

현재 취업상태인 한부모들은 전체 조사응답자의 81.5%였으며, 이러한 고용률은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충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9.9%, 고용률 49.1%는 물론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72.0%, 고용률 70.9% 보다 높은 수치이다.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많은 한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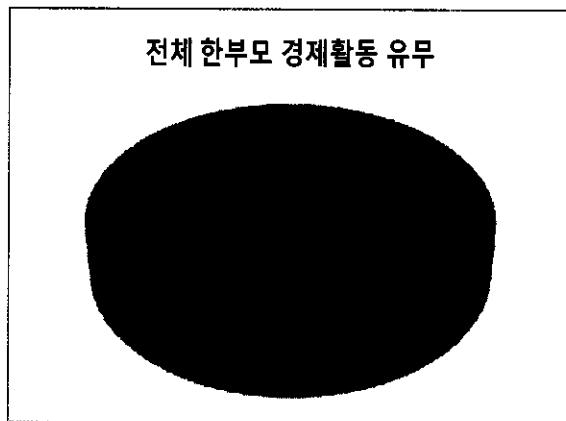
〈표 4-27〉 전체 한부모 경제활동 유무

(단위 : 명, %)

귀하는 현재 일(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476	81.5%
	아니오	108	18.5%
	합계	584	100%

〈그림 4-25〉 전체 한부모 경제활동 유무

(단위 : %)



성별로는 한모(80.8%)보다는 한부(87.3%)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며, 30대(83.9%)와 40대(83.4%), 고졸집단(84.3%)에서 가장 경제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자녀가 초등학생인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로 83.3%,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75.0%로 가장 적었다.

〈표 4-28〉 비교범주별 경제활동 유무

(단위 : 명. %)

성별		남성	63	87.3	12.7	0.210
		여성	521	80.8	19.2	
연령	10대	1	1	0.0	100.0	0.024
	20대	48	48	68.8	31.3	
	30대	168	168	83.9	16.1	0.024
	40대	289	289	83.4	16.6	
	50대	72	72	79.2	20.8	

학력	중졸 이하	66	68.2	31.8	0.013
	고졸	351	84.3	15.7	
	대재~대졸	149	82.6	17.4	
	대학원이상	10	70.0	30.0	
어린 자녀	미취학	164	75.0	25.0	0.037
	초등학생	186	84.9	15.1	
	중고등학생	234	83.3	16.7	
	성인자녀	0	0.0	0.0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임시직이 35.9%, 일용직이 2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상용근로자가 24.7%,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14.4% 순이었다.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은 것은 본 조사가 각 시군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부서와 시설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조사참여자가 주로 정부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부모들의 취업지위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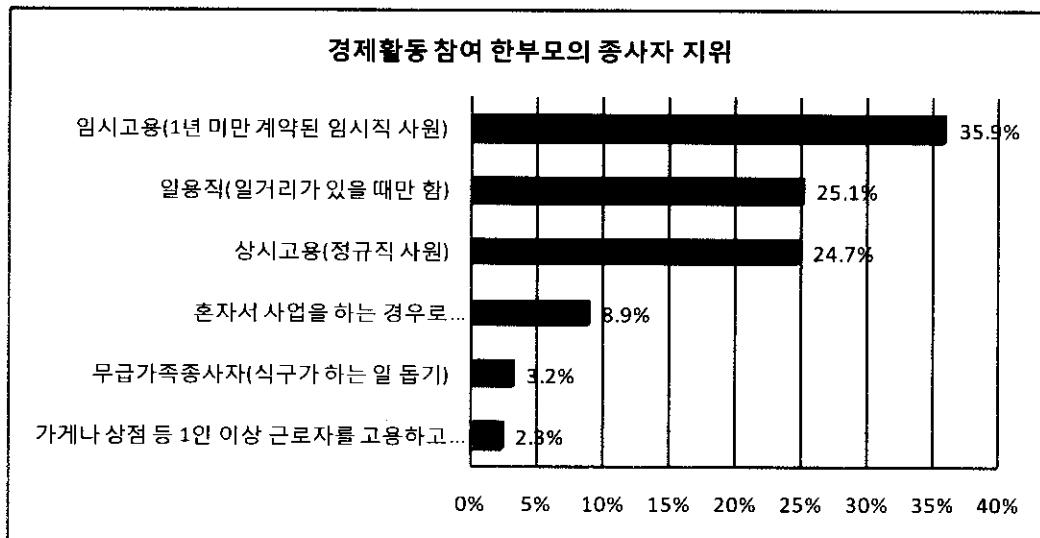
〈표 4-29〉 경제활동 참여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현재 하시는 일(직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상시고용(정규직 사원)	117	24.7%
	임시고용(1년 미만 계약된 임시직 사원)	170	35.9%
	일용직(일거리가 있을 때만 함)	119	25.1%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 가게, 노점상, 기내수공업 등	42	8.9%
	가게나 상점 등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11	2.3%
	무급가족종사자(식구가 하는 일 돌기)	15	3.2%
	합계	474	100%

〈그림 4-26〉 경제활동 참여 한부모의 종사자 지위

(단위 : 가구, %)



비교범주별로 한부는 일용직에 38.9%로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고 다음은 상시직 25.9%, 임시고용 24.1% 순이며, 한모는 임시직 37.4%, 상시직 24.5%, 일용직 23.3% 순으로 고용되어 있었다. 연령대가 낮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시고용과 임시고용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일용직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0〉 성 · 연령 · 학력수준별 종사상지위

(단위 : 명, %)

성별		종사상지위							0.109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54	25.9	24.1	38.9	9.3	1.9	0.0	
	여성	420	24.5	37.4	23.3	8.8	2.4	3.6	
연령	10대	0	0.0	0.0	0.0	0.0	0.0	0.0	
	20대	32	40.6	40.6	6.3	9.4	0.0	3.1	0.000
	30대	141	36.2	41.1	14.9	2.1	2.1	3.5	

연령	40대	240	20.4	33.8	28.8	11.3	2.9	2.9	0.000
	50대	57	7.0	29.8	43.9	14.0	1.8	3.5	
학력	중졸 이하	42	9.5	14.3	59.5	11.9	0.0	4.8	0.000
	고졸	295	22.4	38.6	25.4	8.1	3.1	2.4	
	대학~대학원	125	36.0	39.2	12.8	7.2	1.6	3.2	0.000
	대학원이상	7	28.6	14.3	14.3	0.0	28.6		

직업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저임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거리가 일정치 않음으로 인한 불안감이 15.9%, 일과 가정을 양립함으로 인한 자녀양육 문제(14.2%)와 가사와 병행 문제(14.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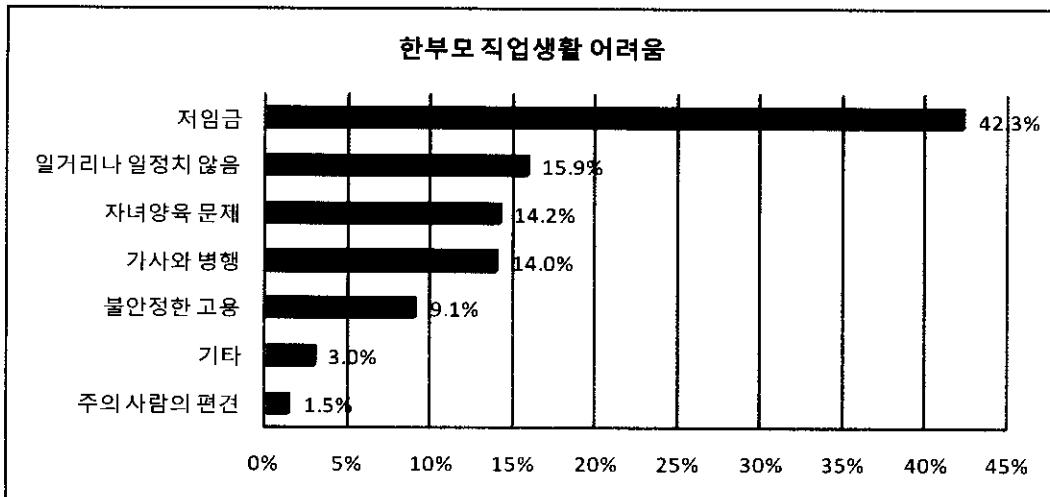
〈표 4-31〉 한부모 직업생활의 어려움

(단위 : 명, %)

현재 직업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 점은 무엇입니까?	저임금	199	42.3%
	일거리나 일정치 않음	75	15.9%
	주의 사람의 편견	7	1.5%
	가사와 병행	66	14.0%
	자녀양육 문제	67	14.2%
	불안정한 고용	43	9.1%
	기타	14	3.0%
	합계	471	100%

〈그림 4-27〉 한부모 직업생활 어려움

(단위 : %)



특성별로는 한부의 경우, 저임금(45.1%), 일거리가 일정치 않음(19.6%), 불안정 고용(11.8%)과 가사병행(11.8%), 자녀양육 문제(7.8%) 순으로 직업생활의 어려움을 응답한데 비해, 한모는 저임금(41.9%), 일거리가 일정치 않음(15.5%)까지는 한부와 비슷하지만 다음으로 자녀양육 문제(15.0%), 가사와 병행(14.3%), 불안정 고용(8.8%), 주위사람의 편견(1.7%)이라고 응답해 자녀양육문제와 사회적인 편견에 있어 한부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직업생활의 어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취학자녀의 경우도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임금(39.0%)을 꼽았지만, 다음은 자녀양육문제(17.9%), 가사와 병행(17.1%) 순임에 비해 초등생자녀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는 저임금이 각각 39.5%, 46.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다음은 일거리의 일정치 않음이 각각 17.2%, 18.3%, 자녀양육문제 15.9%, 10.5% 순으로 응답해 미취학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업과의 병행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큼을 알 수 있다.

〈표 4-32〉 성·자녀연령별 한부모 직업생활의 어려움

(단위 : 명, %)

성별	남성	직업생활의 어려움								0.690
		경기활동	경기활동	경기활동	경기활동	경기활동	경기활동	경기활동	경기활동	
	여성	420	41.9	15.5	1.7	14.3	15.0	8.8	2.9	
	미취학	123	39.0	10.6	3.3	17.1	17.9	9.8	2.4	
자녀	초등학생	157	39.5	17.2	0.6	14.0	15.9	10.2	2.5	
연령	중고등학생	191	46.6	18.3	1.0	12.0	10.5	7.9	3.7	0.305
	성인자녀	0	0.0	0.0	0.0	0.0	0.0	0.0	0.0	

2) 비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한부모 응답자의 생활비 조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가장 많은 34.3%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현금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한부모가 비수급자 한부모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정책의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유인책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은 부모의 도움 24.5%, 형제의 도움 10.8%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 상태 한부의 표본이 매우 작아 분석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부모의 생활비 조달 방법에는 성차가 드러나고 있다. 즉 한모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35.4%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모의 도움 25.0%, 형제의 도움 9.4% 순이지만, 한부는 형제의 도움이 33.3%로 가장 많고 부모의 도움과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16.7%로 나타나, 정책 지원에 대한 의존도나 이용도가 한모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33〉 성별 비경제활동 한부모의 생활비 조달 방법

(단위 : 명, %)

남성	6	16.7	33.3	0.0	0.0	0.0	16.7	33.3	
여성	96	25.0	9.4	1.0	3.1	5.2	35.4	20.8	0.581
전체	102	24.5	10.8	1.0	2.9	4.9	34.3	21.6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41.7% 응답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일이 구해지지 않아서’ 16.5%,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11.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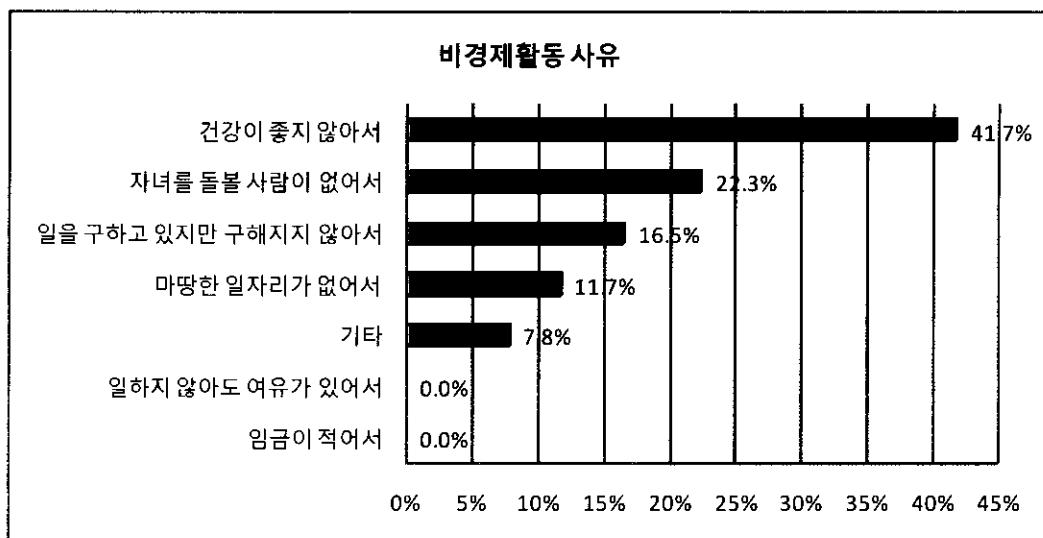
〈표 4-34〉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명, %)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12	11.7%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23	22.3%
	건강이 좋지 않아서	43	41.7%
	임금이 적어서	0	0.0%
	일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어서	0	0.0%
	일을 구하고 있지만 구해지지 않아서	17	16.5%
	기타	8	7.8%
합계		103	100%

〈그림 4-28〉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대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35.7%로 가장 많고 다음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14.3%)와 ‘일이 구해지지 않아서’(14.3%) 순인데 비해, 30대부터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40.0%로 가장 많아지고 다음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일이 구해지지 않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78.6%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일이 구해지지 않아서’ 21.4% 순이었다.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45.0%로 압도적인 이유를 보이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58.3%, ‘일이 구해지지 않아서’가 25.0%인 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자는 없었다.

〈표 4-35〉 연령·어린자녀 연령별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명, %)

	10대	1	0.0	100.0	0.0	0.0	0.0	0.0
	20대	14	14.3	35.7	7.1	0.0	0.0	28.6
연령	30대	25	8.0	32.0	40.0	0.0	12.0	8.0 0,014
	40대	47	17.0	19.1	40.4	0.0	0.0	4.3
	50대	14	0.0	0.0	78.6	0.0	0.0	0.0
	미취학	40	12.5	45.0	17.5	0.0	10.0	15.0
어린 자녀	초등학생	27	11.1	18.5	55.6	0.0	0.0	0.0 0,000
	중고등학생	36	11.1	0.0	58.3	0.0	0.0	5.6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부모들의 경제활동 욕구는 ‘많이 있다’ 가 62.4%, ‘조금있다’ 가 30.1%로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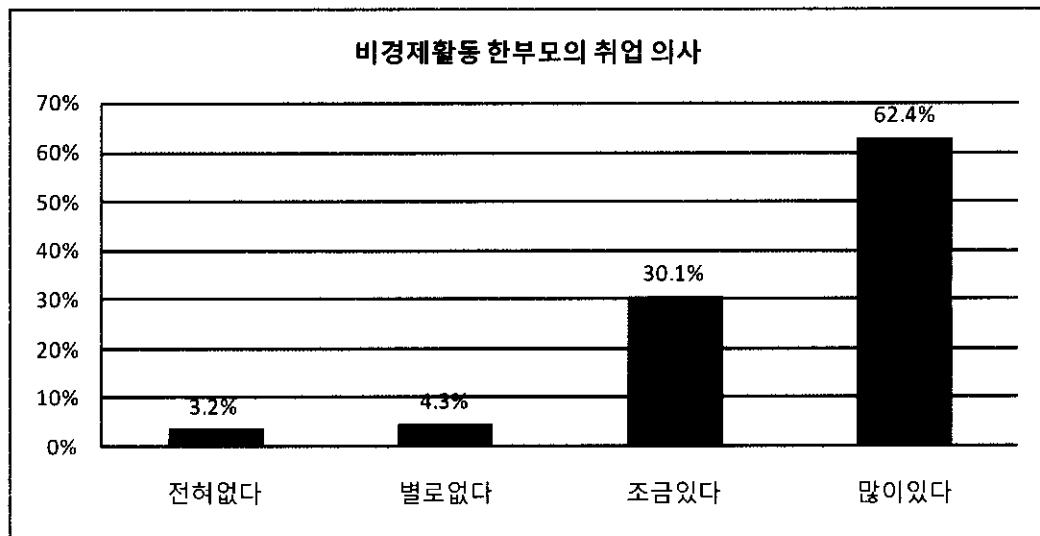
〈표 4-36〉 비경제활동 한부모의 취업 의사

(단위 : 명, %)

앞으로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없다	3	3.2%
	별로없다	4	4.3%
	조금있다	28	30.1%
	많이있다	58	62.4%
	합계	93	100%

〈그림 4-29〉 비경제활동 한부모의 취업의사

(단위 : %)



3)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

조사대상자 중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 응답한 비율은 153명으로 전체의 25.3%로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응답자 중 만족한다는 비율은 28.1%,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은 17.0%로, 그저 그렇다는 비율이 54.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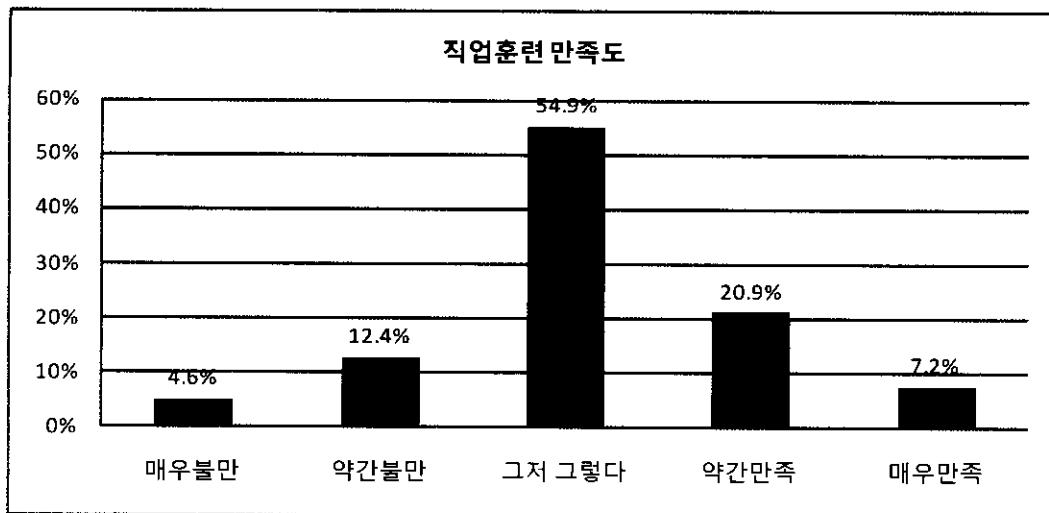
〈표 4-37〉 직업훈련 만족도

(단위 : 명, %)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매우불만	7	4.6%
	약간불만	19	12.4%
	그저 그렇다	84	54.9%
	약간만족	32	20.9%
	매우만족	11	7.2%
	합계	153	100%

〈그림 4-30〉 직업훈련 만족도

(단위 : %)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인 55.0%가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5.0%, ‘교육시간대가 맞지 않는다’가 11.7%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낮고 교육기간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의 문제로 연계해 고려되어야할 문제로 보이며, 고용지위가 불안정하고 비취업상태가 많은 고용취약계층 모자가구의 제도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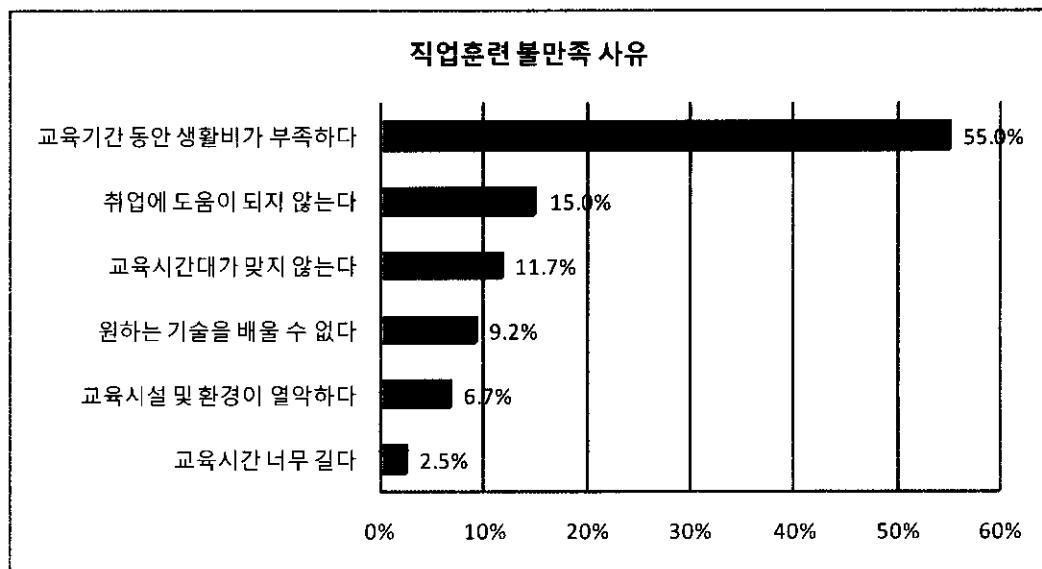
〈표 4-38〉 직업훈련 불만족 사유

(단위 : 명, %)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에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	15.0%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	66	55.0%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없다	11	9.2%
	교육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14	11.7%
	교육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다	8	6.7%
	교육시간 너무 길다	3	2.5%
	합계	120	100%

〈그림 4-31〉 직업훈련 불만족 사유

(단위 : %)



4) 생활비 부담

현재의 수입으로 가족이 한달동안 생활하는데 충분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1.8%가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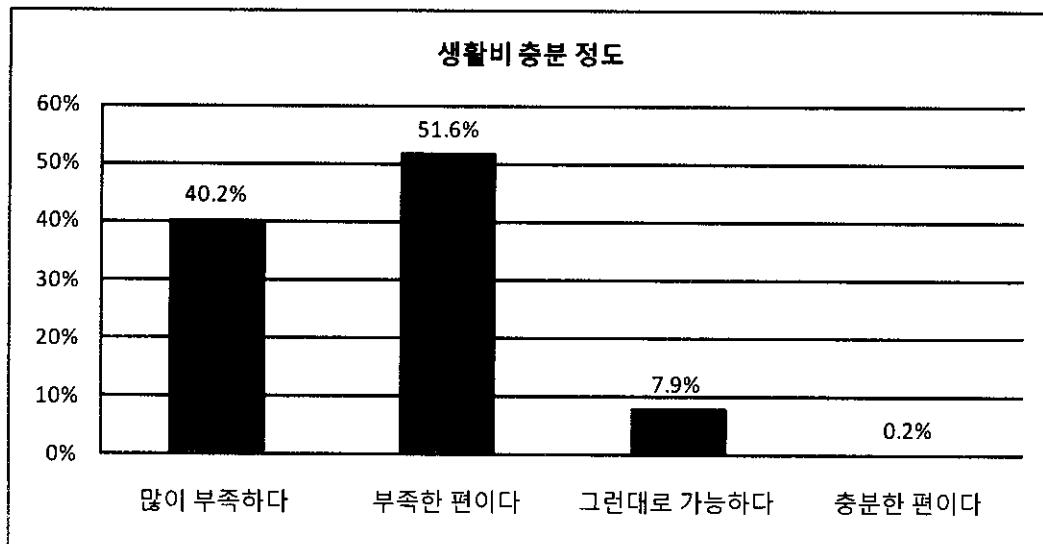
〈표 4-39〉 생활비 충분정도

(단위 : 명, %)

가족이 한달동안 생활하는 데 현재의 수입으로 부족한 편입니까?	많이 부족하다	233	40.2%
	부족한 편이다	299	51.6%
	그런대로 가능하다	46	7.9%
	충분한 편이다	1	0.2%
합계		579	100%

〈그림 4-32〉 생활비 충분 정도

(단위 : %)



4점 척도(충분한 편 : 4점~많이 부족 : 1점)로 비교법주별 생활비 충분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38〉과 같으며, 한모(1.69점)보다는 한부(1.59점)가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1.60)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입의 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생활비 충분정도

(단위 : 명. %)

성별	남성	63	1.59	0.208
	여성	541	1.69	
연령	10대	1	1.00	0.001
	20대	48	1.79	
	30대	171	1.83	0.001
	40대	291	1.60	
	50대	74	1.62	

학력	중졸 이하	67	1.58	0.483
	고졸	354	1.68	
	대재~대졸	152	1.70	
어린 자녀	대학원이상	10	1.80	0.004
	미취학	178	1.81	
	초등학생	189	1.66	
소득	중고등학생	237	1.60	0.000
	100만원미만	163	1.57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300	1.66	
	200만원이상	23	2.18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 교육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식료품비 23.1%, 주거비 18.4%, 부채 12.5%, 공과금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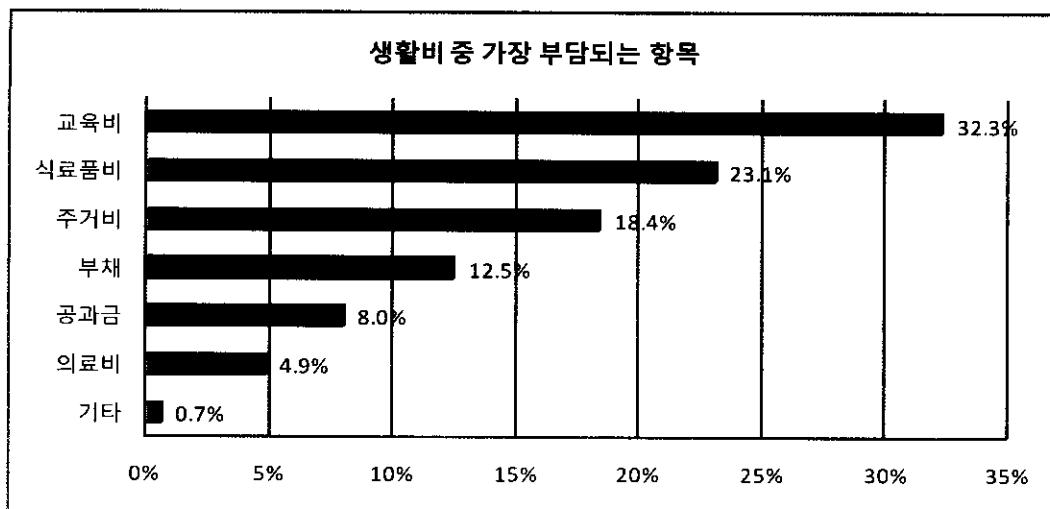
〈표 4-41〉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단위 : 명. %)

현재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식료품비	133	23.1%
	의료비	28	4.9%
	주거비	106	18.4%
	공과금	46	8.0%
	교육비	186	32.3%
	부채	72	12.5%
	기타	4	0.7%
	합계	575	100%

〈그림 4-33〉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단위 : %)



비교법주별로 생활비의 가장 부담되는 항목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는 범주는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과 한부모가 된 기간,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으로 분석 결과는 〈표 4-40〉과 같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식료품비(36.0%)를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다음은 주거비(22.1%), 교육비(17.1%)순으로 응답한데 비해, 초등학생자녀를 둔 한부모는 교육비(37.1%)를 가장 큰 부담 항목으로 다음은 식료품비(14.9%), 주거비(16.9%)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자녀를 둔 한부모는 교육비를(39.5%) 가장 큰 부담으로 다음은 부채(14.9%)와 식료품비(14.9%)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른 생활비 부담 항목을 분석한 결과 5년 미만은 교육비(34.6%)가 가장 큰 부담, 다음은 식료품비(24.3%), 주거비(22.4%) 순으로, 5년이상 10년 미만 한부모도 비슷하게 교육비가 46.2%로 가장 높고, 식료품비(17.9%)와 주거비(17.9%)를 다음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의 경우 교육비(33.1%) 다음으로 부담되는 항목을 부채(20.8%)라고 응답해 훌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출로 인해 생활비 부족분을 부채로 충원함으로써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 교육비 다음으로 부채를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으로 응답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결과이다.

지출 부담 중 특히 자녀교육비에서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발견되는데, 학력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에 대한 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이 일정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저소득층이 자녀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한부모가족 중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족은 자녀교육비를 식료품비보다 더 부담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4-42〉 자녀연령 및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른 생활비 중 부담되는 항목

(단위 : 명, %)

	중졸이하	65	20.0	9.2	16.9	12.3	18.5	21.5	1.5	
학력	고졸	343	23.3	4.4	17.8	7.6	34.4	12.0	0.6	0.379
	다졸이상	159	26.4	4.4	20.1	6.9	32.1	8.8	0.6	
	미취학	164	36.0	6.1	22.0	7.9	17.1	9.8	1.2	
어린 자녀	초등학생	183	21.9	3.8	16.9	7.1	37.2	12.0	1.1	0.000
	중고등학생	228	14.9	4.8	17.1	8.8	39.5	14.9	0.0	
	5년미만	107	24.3	1.9	22.4	3.7	34.6	12.1	0.9	
한부 모된 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39	17.9	5.1	17.9	5.1	46.2	7.7	0.0	0.346
	10년이상	24	16.7	0.0	12.5	16.7	33.3	20.8	0.0	
	100만원미만	160	25.6	6.3	18.1	11.3	25.6	11.9	1.3	
소득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92	21.9	3.8	19.9	5.5	35.6	13.0	0.3	0.257
	200만원이상	22	22.7	4.5	18.2	0.0	45.5	9.1	0.0	

5. 건강·심리정서 상태

한부모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한부모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한부모는 25.0%로 좋지 않다는 응답 32.4%보다 매우 높으며, 정신적 건강상태 역시 좋은 편이다가 24.8%, 좋지 않다는 응답이 25.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울감 증상을 느끼는 한부모가 35.4%로 그렇지 않은 한부모 27.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울증상을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연계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나 평소 생활에서 상당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을 위해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14.2%로 그렇지 못하다는 한부모 56.6%보다 상당히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주기적인 운동을 한다는 한부모 역시 7.5%로 그렇지 않다는 한부모 60.4%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응답율을 보인다.

한편 2013년에 조사된 「충북여성가족정책 도민수요조사」⁶⁾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9.7%가 좋다고 인식하고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9.8%, 정신적 건강상태 역시 건강하다는 인식이 33.3%, 그렇지 않다는 응답 6.8%였던 것과 비교하여 한부모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3〉 주관적인 건강상태 평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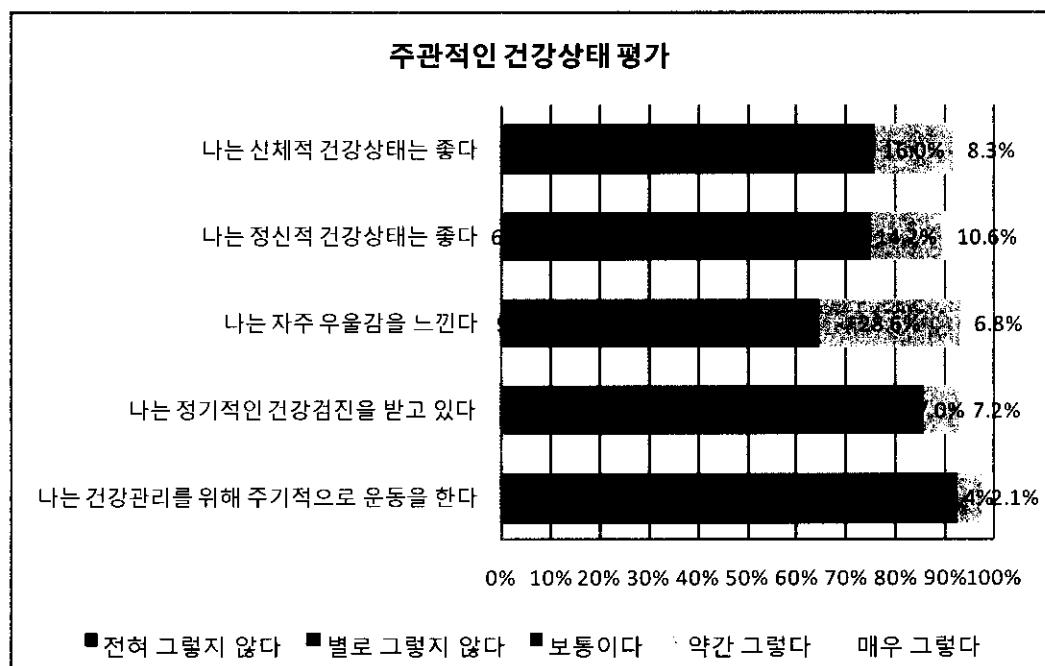
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68	11.7%	120	20.7%	251	43.3%	93	16.0%	48	8.3%
나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좋다	35	6.1%	113	19.6%	286	49.6%	82	14.2%	61	10.6%
나는 자주 우울감을 느낀다.	52	9.0%	104	18.1%	216	37.5%	165	28.6%	39	6.8%

6) 주로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기관을 찾는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324명(여성 287명, 남성 37명)이 대상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167	29.2%	157	27.4%	167	29.2%	40	7.0%	41	7.2%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150	26.1%	197	34.3%	184	32.1%	31	5.4%	12	2.1%

〈그림 4-34〉 주관적인 건강상태평가

(단위 : %)



특히 한부모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 및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다른 유형의 가구형태보다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모자가구가, 학력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은 한부모일수록 우울감의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의 내부 다양성 즉 소득 수준,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함을 시사한다.

〈표 4-44〉 성·연령·학력수준·소득수준별 주관적인 건강평가

(단위 : 명, %)

	남성	63	2.82	3.03	2.90	2.45	2.37
성별	여성	541	2.89	3.04	3.08	2.34	2.21
	p-value		.632	.973	.211	.494	.224
	10대	1	4.00	2.00	4.00	1.00	1.00
	20대	48	3.55	3.34	3.11	2.04	2.30
연령	30대	171	2.96	2.96	3.00	2.27	2.21
	40대	291	2.82	2.97	3.07	2.40	2.21
	50대	74	2.51	3.25	3.12	2.62	2.27
	p-value		.000	.028	.780	.049	.714
	중졸이하	67	2.51	2.94	3.17	2.21	2.13
학력	고졸	354	2.85	2.95	3.07	2.29	2.20
	대졸이상	162	3.12	3.29	2.97	2.54	2.30
	p-value		.002	.004	.585	.146	.162
	100만원미만	163	2.83	2.95	3.13	2.22	2.04
소득	100만원~200만원미만	300	2.95	3.11	3.02	2.36	2.30
	200만원+	23	2.91	3.00	2.87	2.78	2.39
	p-value		.479	.247	.420	.076	.016

함께 사는 가족 중 만성적인 질환으로 입원이나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가족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라는 응답은 56.8%, 본인 또는 자녀 등 치료를 받아야하는 가족원이 ‘있다’는 응답이 43.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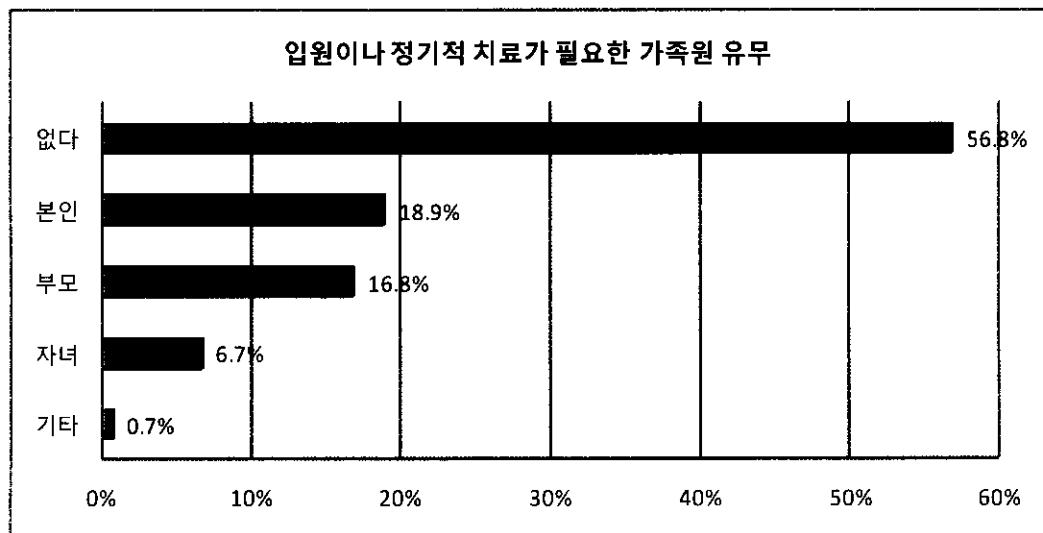
〈표 4-45〉 입원이나 정기적 치료가 필요한 가족원 유무

(단위 : 명, %)

만성질환으로 입원치료나 정기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다중응답)	없다	321	56.8%
	본인	107	18.9%
	자녀	38	6.7%
	부모	95	16.8%
	기타	4	.7%
	합계	565	100%

〈그림 4-35〉 입원이나 정기적 치료가 필요한 가족원 유무

(단위 : %)



그러나, 한부모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질병이 있어 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47.4%에 불과하며, 심할 때만 서비스를 이용한다가 29.6%, 나머지 23.0%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저소득 한부모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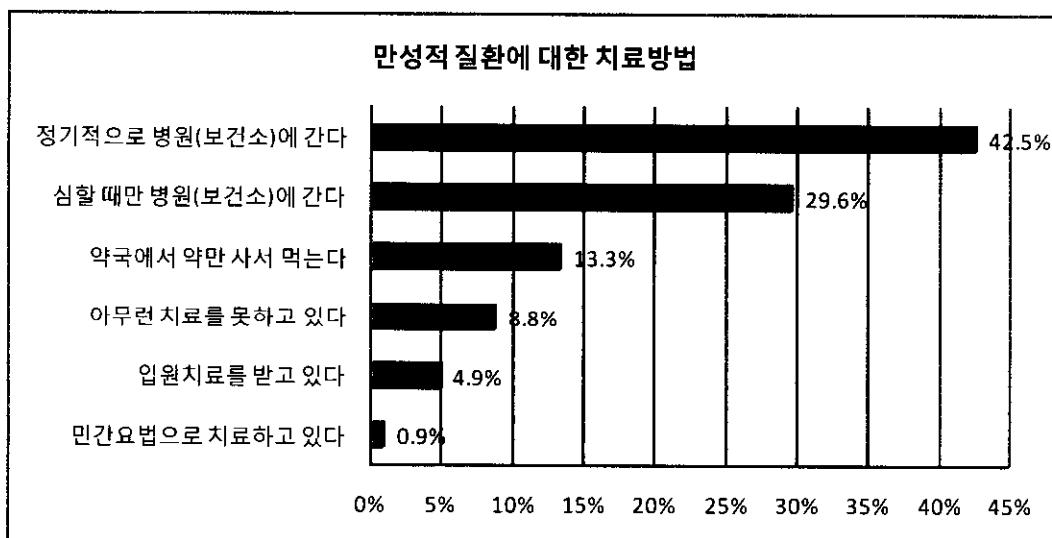
〈표 4-46〉 만성적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

(단위 : 명, %)

현재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11	4.9%
	정기적으로 병원(보건소)에 간다	96	42.5%
	심할 때만 병원(보건소)에 간다	67	29.6%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2	0.9%
	약국에서 약만 사서 먹는다	30	13.3%
	아무런 치료를 못하고 있다	20	8.8%
	합계	226	100%

〈그림 4-36〉 만성적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

(단위 : %)



특히 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응답자들의 33.8%가 경제적인 이유로 약을 사먹는 이외에 아무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장벽 완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한부모의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 및 심리·정서적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7〉 소득수준별 만성적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

(단위 : 명, %)

100만원미만	74	6.8	37.8	21.6	1.4	21.6	10.8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01	5.0	43.6	35.6	1.0	7.9	6.9
200만원이상	6	0.0	33.3	33.3	0.0	16.7	16.7

6. 생활양식

1) 주거환경

조사대상 한부모가족의 거주지 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13.3%에 불과하였으며, 가장 많은 한부모가족이 월세 26.5%로 거주하며,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척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24.1%나 되어 충북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전국평균 한부모가족의 주거 환경과 비교하여 보면 전국적으로 한부모가구의 거주형태가 '자가'인 경우가 23.5%, 월세 23.3%에 비해 자가 거주 비율이 10%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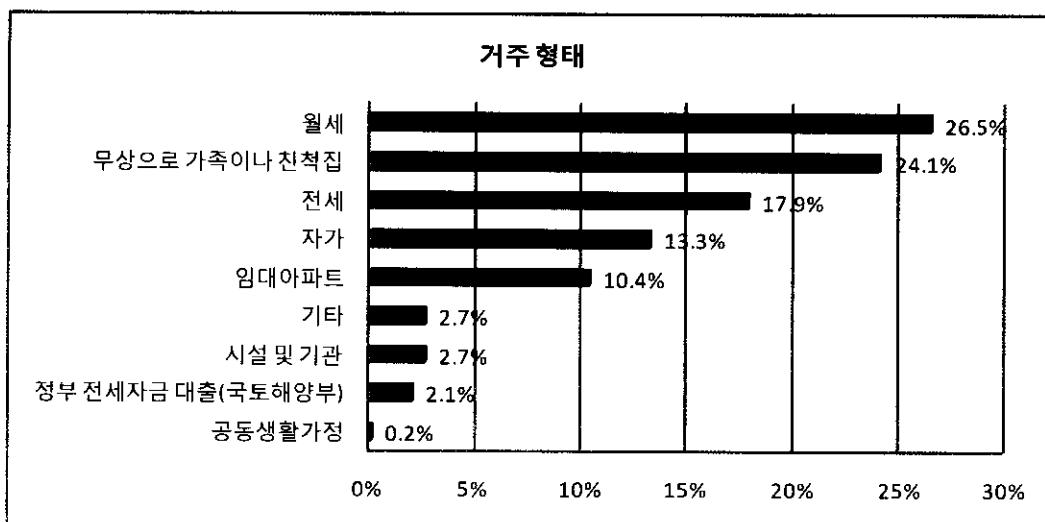
〈표 4-48〉 거주 형태

(단위 : 명, %)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거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자가	78	13.3%
	전세	105	17.9%
	월세	155	26.5%
	임대아파트	61	10.4%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척집	141	24.1%
	정부 전세자금 대출(국토해양부)	12	2.1%
	공동생활가정	1	0.2%
	시설 및 기관	16	2.7%
	기타	16	2.7%
	합계	585	100%

〈그림 4-37〉 거주형태

(단위 : %)



특히 30대 이하의 한부모가 40대 이상인 한부모보다, 가구형태상 모자가구인 한부모가 부자가족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한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가소유라는 응답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긴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이 한부모 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가구보다 두배 정도 낮게 나타나는 것은 오랫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역할을 함으로 주거형태 등 경제적인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 4-49〉 성·연령·한부모로 생활한 기간·소득수준별 거주 형태

(단위 : 명, %)

성별		남성	0.000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5년미만	5~10년 미만	10년이상	100만원 미만
		63	31.7	15.9	23.8	1.6	25.4	0.0	1.6	0.0	0.0	0.000
		522	11.1	18.2	26.8	11.5	23.9	2.3	0.0	3.1	3.1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48	12.5	16.7	31.3	8.3	27.1	0.0	0.0	0.0	4.2	
연령	30대	167	10.8	25.7	25.1	10.8	19.2	1.8	0.0	5.4	1.2	0.402
	40대	290	14.1	16.2	24.8	10.3	26.2	2.8	0.3	2.4	2.8	
	50대	73	17.8	8.2	31.5	11.0	24.7	1.4	0.0	0.0	5.5	
한부 모된 기간	5년미만	108	14.8	23.1	22.2	8.3	22.2	0.0	0.0	3.7	5.6	
	5~10년 미만	40	15.0	22.5	25.0	12.5	20.0	2.5	2.5	0.0	0.0	0.350
	10년이상	25	8.0	28.0	40.0	4.0	20.0	0.0	0.0	0.0	0.0	
	100만원 미만	163	8.0	14.1	29.4	12.9	27.6	2.5	0.6	2.5	2.5	
소득	100~200 만원미만	296	14.5	20.6	25.0	9.1	22.6	1.7	0.0	3.7	2.7	0.042
	200만원 이상	23	39.1	17.4	21.7	4.3	17.4	0.0	0.0	0.0	0.0	

2) 문화 및 여가생활

TV시청을 제외한 한부모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9.6%로 절반가까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2013년에 본 기관에서 조사한 『충북여성가족정책 도민수요조사』⁷⁾의 문화 및 여가 생활 만족도에서 전체 응답자중 불만족에 대한 대답이 26.5%, 만족에 대한 대답이 22.2%임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두배 이상에 달함을 알 수 있다.

7) 주로 청주시에 거주하며, 공기관을 찾는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324명(여성 287명, 남성 37명)이 대상임. 문화 및 여가 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 51.2%로 가장 많았고 '약간 불만족' 21.3%, '약간 만족' 8.5%, '매우 불만족' 5.2%, '매우 만족' 3.7% 순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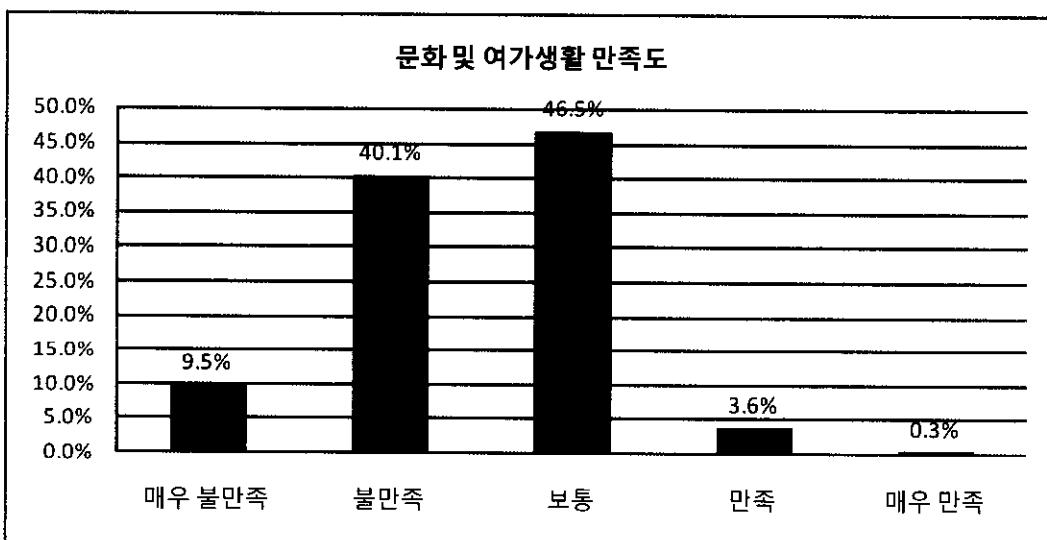
〈표 4-50〉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명, %)

귀하는 평소 문화 및 여가 생활 (TV시청 제외)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55	9.5%
	불만족	233	40.1%
	보통	270	46.5%
	만족	21	3.6%
	매우 만족	2	0.3%
합계		581	100%

〈그림 4-38〉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66.1%가 경제적인 부담을 들었고 다음은 양육·가사 등으로 인한 시간부족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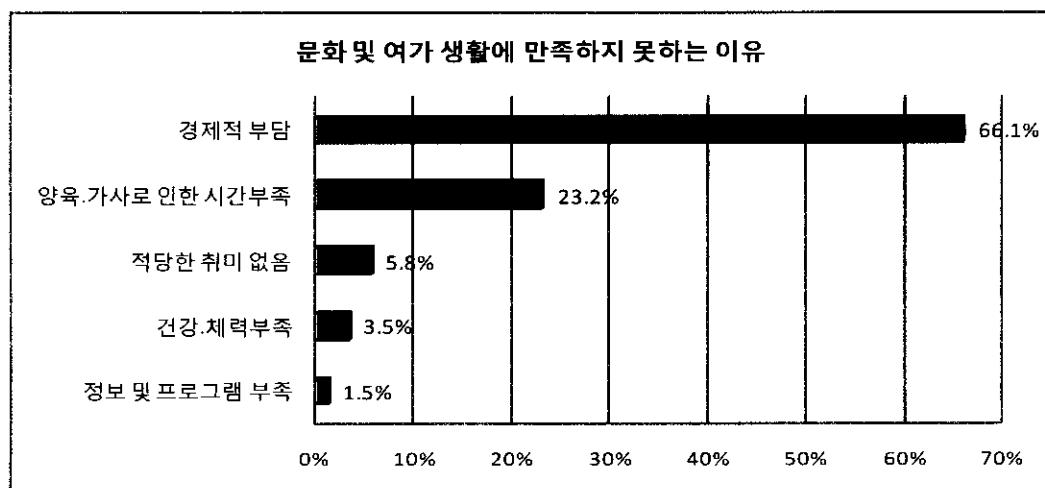
〈표 4-51〉 문화 및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명, %)

귀하가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경제적 부담	362	66.1%
	양육.가사로 인한 시간부족	127	23.2%
	건강.체력부족	19	3.5%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8	1.5%
	적당한 취미 없음	32	5.8%
합계		548	100%

〈그림 4-39〉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



비교범주별로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불만족 비율은 한부가 한모보다, 양육이나 가사로 인한 시간부족 불만족 사유 비율은 한모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불만족 사유 비율은 20대나 30대보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양육이나 가사로 인한 시간부족 불만족 사유 비율은 40대 이상보다 30대 이하 가구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과 소득수준별로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한부모가구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

록 양육과 가사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여건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하는 이유에 의해 일반가구들의 가족구성원들에 비해 문화수준과 그에 따른 만족도 정도가 매우 낮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52〉 성·연령·학력·소득수준·어린자녀연령별 문화 및 여가생활에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

성별	남성	59	71.2	11.9	5.1	1.7	10.2	0.161
	여성	489	65.4	24.5	3.3	1.4	5.3	
연령	10대	1	100.0	0.0	0.0	0.0	0.0	0.461
	20대	43	53.5	34.9	0.0	2.3	9.3	
학력	30대	159	61.6	28.3	2.5	1.9	5.7	0.000
	40대	272	68.8	21.0	4.0	1.5	4.8	
어린자녀	50대	67	71.6	14.9	6.0	0.0	7.5	0.121
	중졸 이하	60	73.3	6.7	10.0	0.0	10.0	
소득	고졸	331	68.6	21.8	2.7	1.2	5.7	0.111
	대재~대졸	140	57.9	31.4	2.9	2.9	5.0	
	대학원이상	10	30.0	70.0	0.0	0.0	0.0	
	미취학	150	58.0	31.3	2.7	1.3	6.7	
	초등학생	181	66.3	24.3	2.8	1.7	5.0	
	중고등학생	217	71.4	16.6	4.6	1.4	6.0	
	성인자녀	0	0.0	0.0	0.0	0.0	0.0	
	100만원미만	153	61.4	22.9	4.6	2.0	9.2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78	69.4	24.1	2.9	0.7	2.9	
	200만원이상	22	54.5	36.4	4.5	0.0	4.5	

컴퓨터 사용 능력정도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서작성과 초보수준’이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많고 ‘보통 수준의 인터넷’ 수준이라는 응답이 26.6%였으며 전혀 못한다는 응답도 14.4%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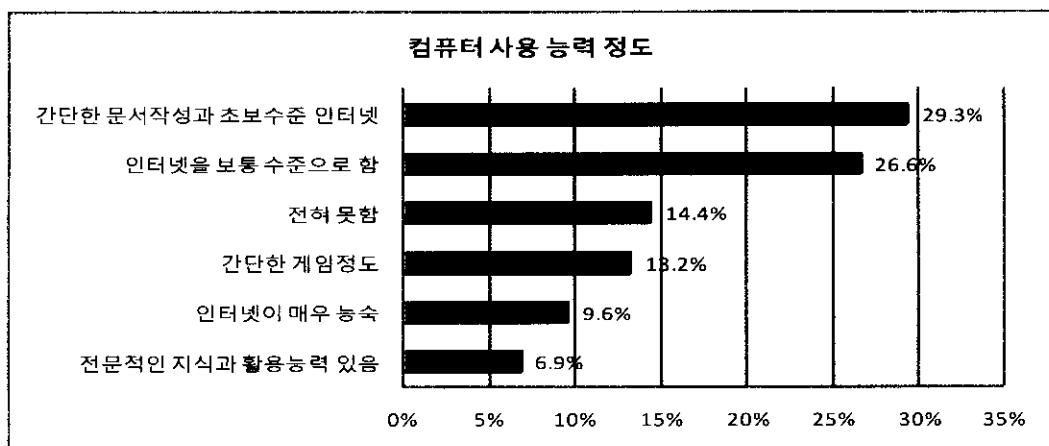
〈표 4-53〉 컴퓨터 사용 능력 정도

(단위 : 명, %)

귀하의 컴퓨터 사용능력 정도는 어떻습니까?	전혀 못함	84	14.4%
	간단한 게임정도	77	13.2%
	간단한 문서작성과 초보수준 인터넷	171	29.3%
	인터넷을 보통 수준으로 함	155	26.6%
	인터넷이 매우 능숙	56	9.6%
	전문적인 지식과 활용능력 있음	40	6.9%
	합계	583	100%

〈그림 4-40〉 컴퓨터 사용 능력 정도

(단위 : %)



7. 정책만족도 및 수요

1) 한부모지원 정책 이용유무 및 만족정도

현재 충청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자의 이용 유무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인 이용여부와 만족정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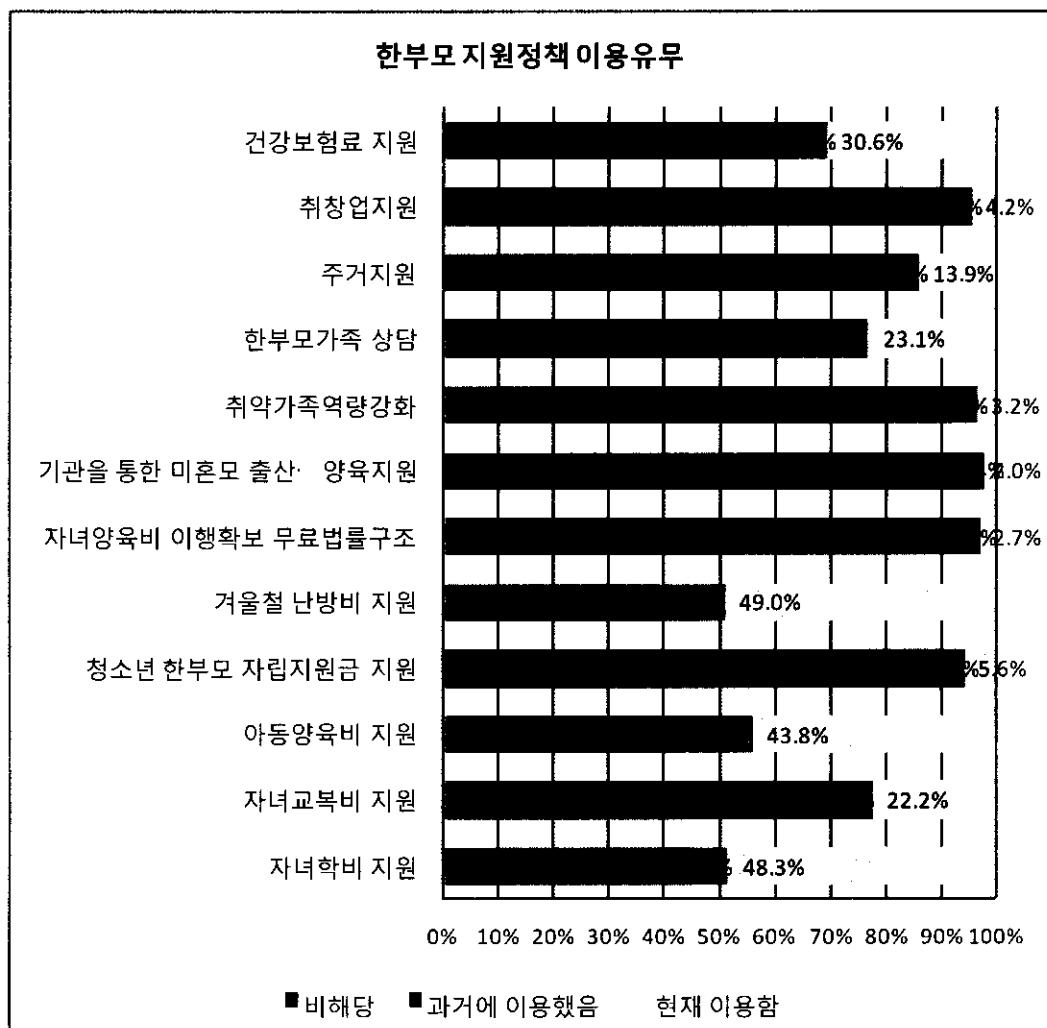
〈표 4-54〉 한부모 지원정책 이용유무

(단위 : 명, %)

	수	%	수	%	수	%
자녀학비 지원	214	45.1%	31	6.5%	229	48.3%
자녀교복비 지원	312	67.1%	50	10.8%	103	22.2%
아동양육비 지원	203	43.8%	58	12.5%	203	43.8%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지원 (양육비·검정고시·지립지원촉진수당)	388	90.9%	15	3.5%	24	5.6%
겨울철 난방비 지원	183	39.4%	54	11.6%	228	49.0%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	422	94.8%	11	2.5%	12	2.7%
기관을 통한 미혼모 출산·양육지원	425	96.6%	6	1.4%	9	2.0%
취약가족역량강화 (건강·직업교육·일자리·법률문제 등 사례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399	92.1%	20	4.6%	14	3.2%
한부모가족 상담 (복지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49	57.0%	87	19.9%	101	23.1%
주거지원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360	80.7%	24	5.4%	62	13.9%
취창업지원	392	91.2%	20	4.7%	18	4.2%
건강보험료 지원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월10~30%경감)	279	64.6%	21	4.9%	132	30.6%

〈그림 4-41〉 한부모 지원정책 이용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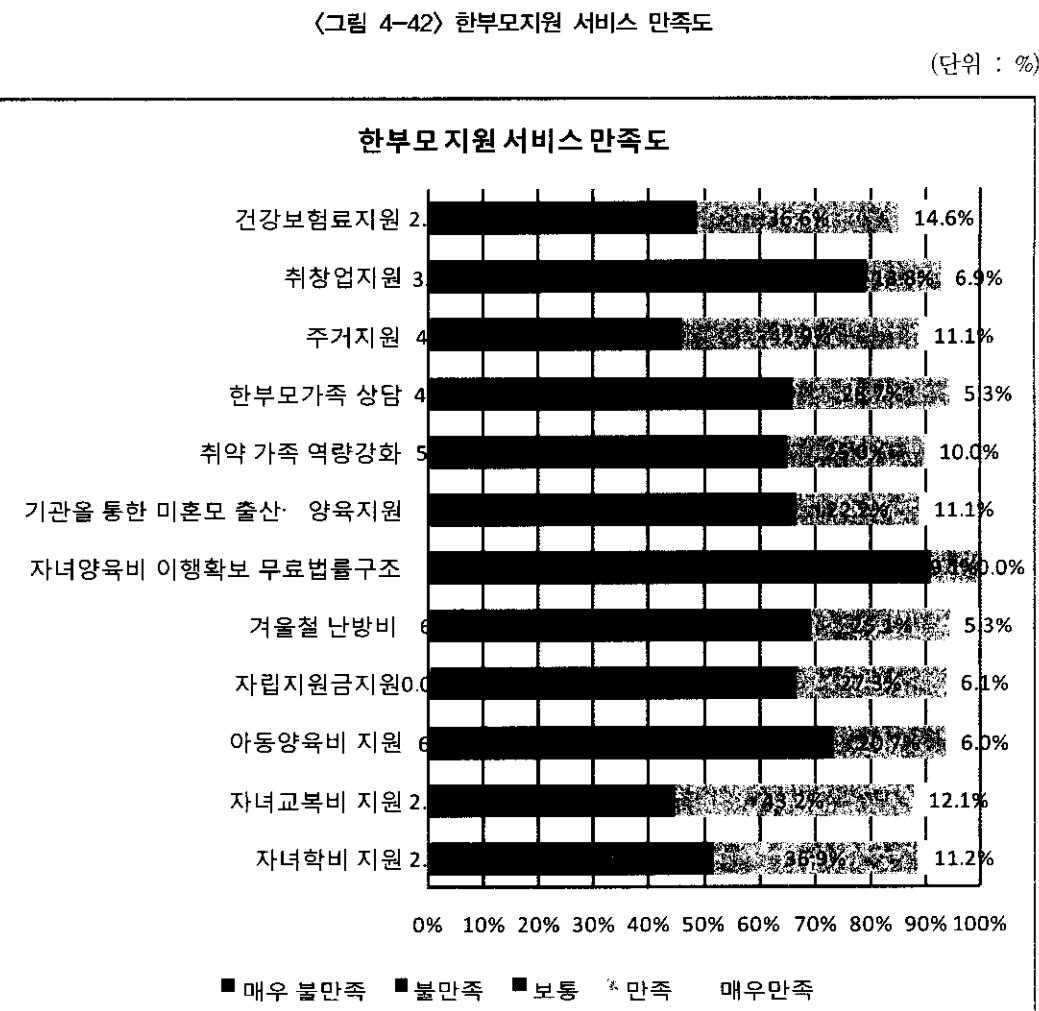
(단위 : %)



〈표 4-55〉 한부모 지원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

		5	2.3%	12	5.6%	94	43.9%	79	36.9%	24	11.2%
자녀학비 지원		3	2.3%	8	6.1%	48	36.4%	57	43.2%	16	12.1%
자녀교복비 지원		13	6.0%	49	22.6%	97	44.7%	45	20.7%	13	6.0%
아동양육비 지원		0	0.0%	5	15.2%	17	51.5%	9	27.3%	2	6.1%
자립지원금지원		16	6.6%	49	20.2%	104	42.8%	61	25.1%	13	5.3%
겨울철 난방비		2	18.2%	1	9.1%	7	63.6%	1	9.1%	0	0.0%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		2	22.2%	0	0.0%	4	44.4%	2	22.2%	1	11.1%
미혼모 출산·양육지원		1	5.0%	3	15.0%	9	45.0%	5	25.0%	2	10.0%
취약 가족 역량강화		7	4.7%	10	6.7%	82	54.7%	43	28.7%	8	5.3%
한부모가족 상담		3	4.8%	3	4.8%	23	36.5%	27	42.9%	7	11.1%
주거지원		1	3.4%	5	17.2%	17	58.6%	4	13.8%	2	6.9%
취창업지원		3	2.4%	5	4.1%	52	42.3%	45	36.6%	18	14.6%
건강보험료지원											



① 자녀학비 지원(입학급 및 수업료 등)

입학금 수업료 등 자녀 학비 지원서비스는 조사대상자 중 54.8%가 현재 이용중이거나 과거에 이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한다는 비율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통 43.9%, 불만족한다는 비율 7.9%순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다.

② 자녀 교복비 지원

교복비 지원 서비스는 조사대상자 중 33.0%가 이용중이거나 과거에 이용했다고

응답하여 자녀학비 지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수혜율이 낮으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 보통 36.4%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③ 아동양육비 지원

12세미만 아동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서비스는 전체 응답자의 56.3%가 수혜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 26.7%보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28.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④ 자립지원금 지원

청소년한부모 대상으로 양육비, 검정고시,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등의 지원서비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1%가 수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서비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서비스 수혜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지원금 지원서비스의 만족정도는 이용했다고 대답한 전체 응답자의 33.4%가 만족했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5.2%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⑤ 겨울철 난방비 지원

월동기 난방비지원서비스는 전체 응답자의 60.6%가 과거에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높은 수혜율을 보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이 30.4%, 보통이 42.8%,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26.8% 순으로 나타났다.

⑥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자는 현재 이용한다는 경우가 2.7%, 과거에 이용했다는 응답자가 2.5%로 수혜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혼 또는 미혼 한부는 물론, 한모 역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부분 비해당(96.6%)이라고 응답하였다. 자녀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경우 소득 및 재산정도 등에 상관없이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이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한 한부모들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9.1%에 불과했으며 27.3%가 불만족, 보통이 63.6%로 만족도와 정책 자체의 인식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9%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양육비용 부담이 전가될 여지가 있어 제도 홍보를 비롯한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기관을 통한 미혼모 출산·양육지원

미혼모 출산과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조사대상자는 15명이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3명, 불만족스러웠다는 응답자는 2명, 보통은 4명으로 나타났다.

⑧ 취약가족역량강화

건강·직업교육·일자리·법률문제 등 사례에 따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는 전체 응답자의 7.8%만이 과거에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92.1%가 스스로 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이 서비스 역시 인지도 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이용한 한부모들은 45%가 서비스에 대해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보였고, 35.0%는 만족한다. 20.0%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⑨ 한부모가족 상담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상담이나 지도를 제공하는 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43.0%가 과거 이용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만족정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4.0%,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11.4%로 만족한다는 한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⑩ 주거지원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를 지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는 전체 응답자

의 19.3%가 과거에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중이라고 응답하였고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4.0%로 과반수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만큼 정책의 필요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⑪ 취창업지원

직업교육훈련이나 취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9%만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여 서비스의 접근성과 홍보, 인식 제고, 정책 효율성 등을 더욱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만족도는 58.6%가 보통, 20.7%가 만족, 20.6%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실질적인 취업 연계 등을 위한 정책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직업훈련 만족에 대해서도 절반이 상이 교육시간동안 생활비 부족 문제와 실질적 취업연계 문제가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가 된 만큼 자활을 위한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를 일정 정도 지원하도록 하여 이용도를 높이고 취창업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훈련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⑫ 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월 10–30% 경감해주는 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는 전체 유효응답자의 35.5%가 과거에 이용하였거나 현재 이용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한다는 비율이 51.2%로 과반수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주거지원이나 건강보험료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 지원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롭지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정도가 큰 만큼 정책 수요도와 수혜시 만족도가 크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기준완화 등 서비스 수혜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하겠다.

2) 정책요구

현재의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 중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전체의 66.7%가 “생계비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은 “양육비 및 학비 보조”로 15.3%, “임대아파트 입주 및 분양시 우선권 부여”와 “전세용자금 보조”

등 주거지원이 10.4%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긴급하게 지원받길 바라는 서비스로는 45.9%가 “양육비 및 학비 보조”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생계비 지원”이 12.7%, “임대아파트 입주 및 분양시 우선권 부여”가 9.6%, “취창업 지원” 7.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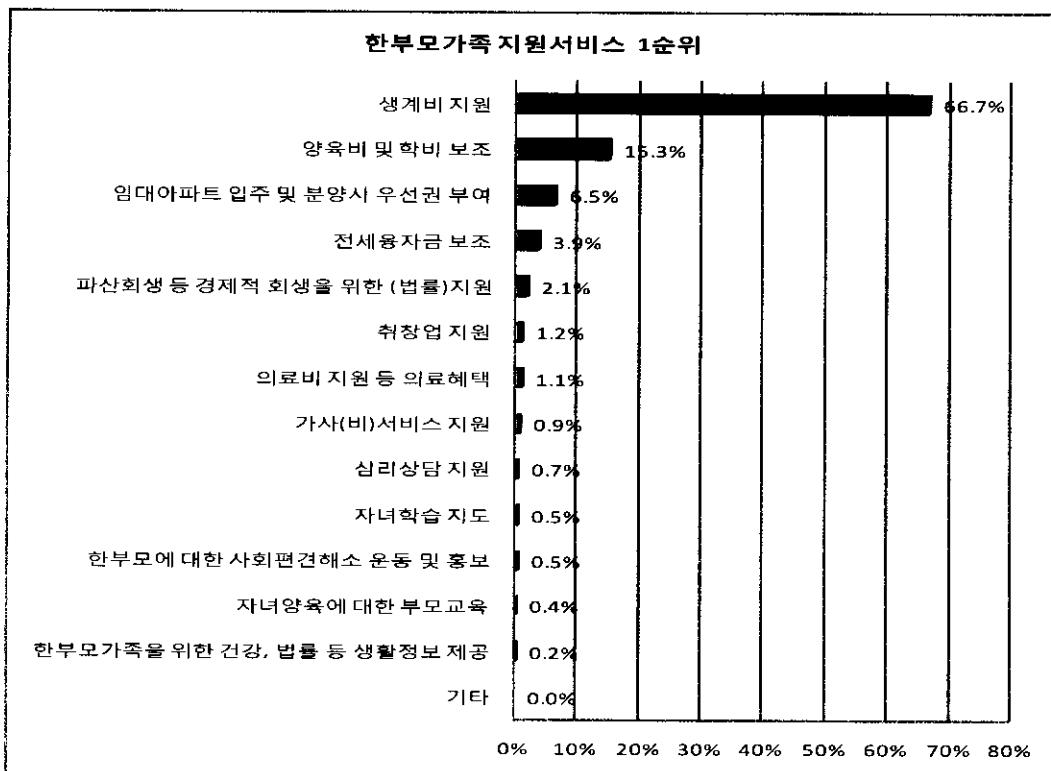
〈표 4-56〉 가장 긴급한 지원 서비스 순위

(단위 : 명. %)

1순위	생계비 지원	379	66.7%
	양육비 및 학비 보조	87	15.3%
	임대아파트 입주 및 분양시 우선권 부여	37	6.5%
	전세융자금 보조	22	3.9%
	파산회생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12	2.1%
	취창업 지원	7	1.2%
	의료비 지원 등 의료혜택	6	1.1%
	가사(비)서비스 지원	5	.9%
	심리상담 지원	4	.7%
	한부모에 대한 사회편견해소 운동 및 홍보	3	.5%
	자녀학습 지도	3	.5%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2	.4%
	한부모가족을 위한 건강, 법률 등 생활정보 제공	1	.2%
	기타	0	.0%
2순위	합계	568	100%
	양육비 및 학비 보조	257	45.9%
	생계비 지원	71	12.7%
	임대아파트 입주 및 분양시 우선권 부여	54	9.6%
	취창업 지원	41	7.3%
	전세융자금 보조	35	6.3%
	의료비 지원 등 의료혜택	28	5.0%
	파산회생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21	3.8%
	자녀학습 지도	20	3.6%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9	1.6%
	심리상담 지원	8	1.4%
	가사(비)서비스 지원	6	1.1%
	한부모가족을 위한 건강, 법률 등 생활정보 제공	5	.9%
	한부모에 대한 사회편견해소 운동 및 홍보	4	.7%
	기타	1	.2%
	합계	560	100%

〈그림 4-43〉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1순위

(단위 : %)



〈표 4-56〉는 한부모가족 지원 희망서비스 1순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이다. 분석 결과 역시 생계비지원, 양육비 및 학비보조 순의 요구도를 보이기는 하나, 가구유형, 연령, 학력, 소득, 자녀연령별로 비율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구유형별로 부자가구는 생계비지원이 66.1%, 양육비 및 학비보조 17.9%, 다음으로 파산회생 등 경제적 회생 지원이 3순위로 7.1%, 가사서비스 지원 5.4%, 주거지원 1.8% 순의 요구도를 보였으나, 모자가구는 생계비 66.8%, 양육비 및 학비 보조 15.0% 다음으로 주거지원이 11.3%, 경제적 회생지원 1.6%, 취창업지원 1.4%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유형별로는 부자가구보다 모자가구의 주거지원과 취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자가구는 모자가구보다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과 가사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양육비 및 학비보조”와 “임대아파트 입주 및 분양시 우선권 부여”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력과 소득수준별로는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계비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 및 학비보조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생계비지원(65.6%) 다음 순으로 주거지원(14.0%), 양육비 및 학비보조(12.1%) 순의 요구도를 보이지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생계비지원이 각각 69.9%, 64.9% 다음으로 양육비 및 학비보조가 각각 15.3%, 17.5%, 주거지원이 8.2%, 9.7% 순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 및 학비보조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57〉 비교범주별 한부모가족 지원 요구 1순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

성별	남성	1순위														
		56	66.1	17.9	7.1	1.8	0.0	0.0	5.4	0.0	0.0	0.0	0.0	1.8	0.0	0.002
연령	여성	512	66.8	15.0	1.6	11.3	1.2	1.4	0.4	0.8	0.6	0.4	0.4	0.2	0.0	0.509
	20대	47	61.7	17.0	0.0	12.8	0.0	2.1	4.3	0.0	0.0	2.1	0.0	0.0	0.0	
	30대	163	64.4	16.6	1.2	12.2	1.2	0.6	0.0	1.8	0.6	0.6	0.6	0.6	0.0	
	40대	281	68.3	15.7	2.5	9.3	1.4	1.4	0.7	0.0	0.7	0.0	0.0	0.0	0.0	
	50대	70	67.1	11.4	4.3	8.6	0.0	1.4	1.4	1.4	0.0	0.0	2.9	1.4	0.0	
	중졸이하	63	77.8	6.3	3.2	9.5	0.0	0.0	0.0	1.6	1.6	0.0	0.0	0.0	0.0	
학력	고졸	341	66.6	16.1	1.8	9.9	1.2	1.5	1.2	0.3	0.6	0.0	0.6	0.3	0.0	0.238
	대재~ 대졸	146	62.3	17.1	2.7	11.7	0.7	1.4	0.7	1.4	0.0	1.4	0.7	0.0	0.0	
	대학원+	10	50.0	2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녀연령	미취학	157	65.6	12.1	1.3	14.0	0.6	0.6	1.3	1.9	0.6	0.6	1.3	0.0	0.0	0.283
	초등생	183	69.9	15.3	1.6	8.2	1.6	1.1	0.5	0.0	1.1	0.5	0.0	0.0	0.0	
	중고생	228	64.9	17.5	3.1	9.7	0.9	1.8	0.9	0.4	0.0	0.0	0.4	0.4	0.4	
소득	100 미만	159	69.2	13.8	1.3	10.1	1.3	0.6	1.3	0.6	0.6	0.6	0.6	0.6	0.0	0.508
	100~ 199	292	66.1	17.1	2.1	10.3	1.0	1.7	0.0	1.0	0.3	0.0	0.0	0.3	0.0	
	200+	21	57.1	19.0	0.0	14.3	0.0	4.8	0.0	0.0	0.0	4.8	0.0	0.0	0.0	

8.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1) 생활·사회적 실태

한부모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80.9%로 가장 크고, 다음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12.3%, 주거문제 3.1%였다.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한부모가 전체의 43.1%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한부 24.2%, 한모 45.4%가 결혼생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해 한모가 두배 정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자신과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이혼한부모보다 미혼부모가 재혼(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77.9%로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학생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일수록 상대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기 자녀를 두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집단이 양육비 문제로 인한 빈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부모가 된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가정경제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감, 직장과 가정 병행문제, 취업문제, 건강문제, 사회적 편견, 대인관계, 자녀와의 관계 순으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부보다는 한모가 사회적 편견과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에 대해 스트레스가 다소 높았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자녀와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한부의 스트레스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자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못지 않게 양육이나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와 직장과 집안 일 병행 문제에 스트레스를 높게 드러냈으며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가정경제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가 됨으로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 된 후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보다 이웃과의 관계와 학교, 보육시설 등 자녀의 생활과 관련해 편견과 차별을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 교제시, 이웃과의 관계, 관공서 등 많은 영역에서 미혼 부모가 편견과 차별을 가장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돌봄실태

한부모들의 자녀돌봄 실태는 미취학자녀의 시설보육이 61.8%로 상당히 높았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15.8%, 본인이 돌보는 경우가 13.9%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직접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도 ‘비용이 비싸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다’로 나타나 시설보육이 장시간근로나 일시보육 등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은 미취학자녀보다 본인 등의 직접돌봄이 48.3%로 높게 드러나고 기관 이용은 26.1%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21.3%로 나타나 한부모 자녀들의 돌봄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교육비부족’이 63.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시간부족’ 15.6% ‘학습지도 부족’ 10.0%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비부족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 잡고 미취학자녀일수록 절대적 시간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교육비 부족’, ‘학습지도부족’, ‘자녀의 반항’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편 부자기족은 모자가족에 비해 ‘자녀와의 대화 단절’과 ‘학습지도 부족’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부모들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 연령이나 성장단계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준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욕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3.1%가 ‘직접적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수당확대’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자녀학습지도 프로그램’ 19.4%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정책욕구는 특성별로 상대적 요구도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먼저 한부는 가사분담을 위한 가사지원 프로그램과 직접적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수당 확대 항목에서 한모보다 상대적 요구도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자녀학습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고학력일수록 ‘직



접적인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수당 확대' 요구도가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자녀학습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3) 취업, 소득 등 경제상태

현재 취업상태인 한부모가 전체의 81.5%로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많은 한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임시직이 35.9%, 일용직 25.1%, 상용근로자 24.7%로 상용근로자 비율은 낮았다. 한모(80.8%)보다 한부(87.3%)의 경제활동 비율이 약간 높고 30대와 40대, 고졸집단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임금(42.3%)이 가장 많고 다음은 '일거리가 일정치 않음', '자녀양육문제', '가사와 병행문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모는 자녀양육문제와 사회적 편견에 있어 한부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부모는 가장 많은 34.3%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정책지원에 대한 의존도나 이용도는 한부보다 한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41.7%가 '건강 문제'였으며, 다음은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일이 구해지지 않아서' 순이었다.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비율은 25.3%로 다소 낮았고 만족 비율도 28.1%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을 들어,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 만족도가 낮은 것은 결국 비용의 문제로 연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전체적으로는 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부채, 공과금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집단과 한부모가 된 기간이 다소 긴 가구의 경우 가장 큰 부담 항목으로 교육비 다음으로 부채를 들고 있어 홀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을 짐작할 수 있다. 지출 부담 중 특히 자녀교육비에서는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4) 건강·심리정서 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평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5.0%만이 좋다고 인식하고 32.4%는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울감 증상을 느낀다는 한부모가 35.4%로 그렇지 않은 한부모 27.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고 학력,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학력 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모자가구의 경우 우울감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부모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매우 낮게 나타나 저소득 한부모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5) 생활양식

주거 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전체의 13.3%에 불과했고 월세(26.5%)가 가장 많고 무상으로 기족이나 친척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24.1%나 되어 주거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가 40대 이상 한부모보다, 모자가구가 부자가족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한부모들의 자가소유가 현저히 낮았다.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불만족스러워했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66.1%가 경제적인 부담을 들었고 다음은 양육, 가사로 인한 시간부족을 들었다.

6) 정책요구도

한부모가족에게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전체의 66.7%가 ‘생계비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은 ‘양육비 및 학비보조’ 15.3%, ‘주거 지원’이 10.4% 순이었다. 집단별로는 부자가구는 생계비지원, 양육비 및 학비 보조, 경제적 회생지원, 가사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순의 요구도를 보였으나, 모자가구는 생계비, 양육비 및 학비보조, 주거지원, 경제적 회생지원, 취창업지원 순으로 나타나 부자가구보다 모자가구의 주거지원과 취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부자가구는 모자가구보다 경제적 회생 지원과 가사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7) 조사결과의 주요 시사점

주요조사결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77.9%,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저조, 자녀양육으로 한부모 기간이 길수록 가정경제 위기가 중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제도 등 강력한 장치 마련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한부의 과중한 스트레스본인의 연령,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가정경제와 자녀양육 교육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격심(홀로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부족)	<p>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양육, 교육권련 정보 제공,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 부모역할 지원 부모상담 서비스 강화상담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연계오리, 청소 등 가사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자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부모가족의 경우 기관이용율이 높지만 교육·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직접 돌봄이 상대적으로 높고기관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 '비용이 비쌈'과 '원하는 시간이 아님'이라는 응답이 다수 ⇒시설 운영방식, 비용 등의 구조적 요인이 수요자들의 서비스 및 시설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긴급 상황시 한부모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돌봄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시간제 또는 탄력적 시간을 고려한 자녀돌봄시설이나 서비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부모 생활비 조달 상당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의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복지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다.한부 보다는 한모의, 특히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비근로상황과 복지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유인책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육기간동안 생활비 부족의 이유로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낮고 참여하더라도 실질적 취업연계가 어려워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에 만족도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용지위가 불안정하고 비취업 상태가 많은 고용취약계층 한부모 모자기구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모자가구일수록 우울감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부모의 내부다양성 즉 소득수준,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지원 정책개발 필요

1. 면접조사 개요

이 장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 사별·이혼·미혼 한부모, 남성한부모, 시설거주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1) 심층면접 대상자 및 특성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은 〈표 4-58〉과 같다.

〈표 4-58〉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

미혼 부모	1	33	고졸	없음	71만원(수급)	1	10년	나전세임대
	2	37	대졸	부업(리본공예)	80만원(수급+양육비)	1	4년	월세
	3	43	고졸	일용직	—	1	3년	매입임대
	4	34	고졸	없음	80만원	1	1년	월세
	5	24세	중졸	없음	—	1	3년	—
	6	29세	대졸	없음	—	1	1년	부모와동거
	7	42세	고졸	회사원	100만원	1	2년	전세
	8	28세	대졸	없음	160만원	1	최근	부모와동거
재가 (사별) 한모	9	50세	고졸	일용직	85~90만원	2	2년	—
	10	48세	대재	조리원	100만원	2	5년	자가
	11	44세	고졸	판매아르바이트	50~70만원	1	4년	나전세임대
	12	42세	고졸	회사원	230만원	2	1년	월세
재가 (이혼) 한모	13	46세	고졸	임시직	100~150만원	3	6년	전세
	14	53세	초졸	공공근로	68만원	4명	3년	전세
	15	48세	고졸	서비스업	50만원	1명	7년	친정부모집
재가 (이혼) 한모	16	44세	고졸	임시직	60만원	2명	12년	전세임대
	17	46세	고졸	간호조무사	130만원	2명	1년	월세
	18	44세	대졸	회사원	130만원	2명	2년	전세
	19	35세	전문대	사무직알바	90만원	1명	3년	나전세임대

	이훈	20	23세	고졸	병원실습생	-	1명	5년	-
시	미훈	21	22세	고졸	없음	50만원(기초수급)	1명	1년	-
설	이훈	22	46세	고졸	회사원	96만원	2명	15년	-
한	이훈	23	45세	대졸	사회복지사	140만원	1명	4년	-
모	이훈	24	49세	대재	없음	-	3명	7년	-
	이훈	25	35세	고졸	아르바이트	100만원	2명	11년	-
한부(이훈)	26	48세	고졸	없음	수급비	3명	7년	월세	
다문화	한모(이훈)	27	42세	대재	자활사업단	50만원	2명	9년	LH전세임대
한모(이훈)									

2) 조사 시기

심층면접은 개별심층면접으로 2014년 5월 7일~5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한부모가구주와의 라포(rapport)형성을 고려하여 한부모들과 평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기관실무자 및 상담사를 면접조사원으로 일시고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면접지를 통해 진행하는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3) 조사내용

면접조사 내용은 설문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59〉 심층면접 주요 내용

- | | |
|----------------|--|
| 한부모 형성과정과 양육분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구의 형성요인(사별, 이혼, 미혼한부모) • 사별한부모의 상실의 경험, 자녀양육에 특히 어려운 점 • 이혼한부모의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협의 및 갈등과정 • 미혼한부모의 자녀출산 및 양육결정 |
| 생활실태 및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생활 실태 • 주거실태 • 자녀양육실태 • 사회적 관계형성 및 지원체계 형성 • 서비스 이용경로 |
| 정책수혜현황과 정책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개선욕구 • 정책수요 |
| 향후 생활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형성에 대한 계획 및 의견 |

2. 조사 결과

1) 한부모가족 형성과정과 양육부담

한부모가족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것이다. 사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자녀에 대한 책임을 부모 중 한 쪽이 맡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대상별로는 한부모 형성과정에 따른 양육 문제 해결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별가족의 경우 배우자 사망원인과 사별후 남은 가족의 어려움과 가족의 상실 경험, 자녀양육 시에 특히 어려운 점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가구 중 세 사례가 사별 한부모가구인데, 모두 남편이 암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한 케이스로 생존 배우자가 자녀를 맡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사별한 부모는 배우자의 투병기간, 유산, 경제활동 중단기간 등이 남은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병으로 인한 사별의 경우, 배우자의 투병기간동안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인한 부부의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사별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고 더욱 이 자녀가 미취학 또는 취학중인 경우 양육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어느정도 예측과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는 이혼한부모의 어려움과는 또 다른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간암으로 남편이 가고, 두 자녀를 흘로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둘째가 장애까지 있어 활동에 제약 많고 그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해요(사례10)

간암으로 남편이 사망했는데, 사실 만났을 때부터 남편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결혼생활 내내 늘 간병을 했었어요. 아이가 어리다보니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투병기간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아이가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무덤덤하게 어린이집에서 말해 깜짝 놀랐어요. 아직 어려서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이혼을 해도 아빠가 살아있으면 나중에라도 만날 수는 있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으니 애가 크면 아빠가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사례 11)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이나 미혼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배우자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남편,

아빠에 대한 ‘근본적인 결핍감’,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주원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잦은 다툼(사례14, 20, 25, 27), 폭력과 폭언, 알콜리(사례12, 17, 18, 23, 24) 외도(사례13, 15, 22), 유기(사례16), 시댁과의 갈등(사례19)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다툼, 폭력과 폭언 등이 동시에 수반되어 갈등이 쌓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외도로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으면서 생활비도 끊기고 아이들과 밥도 못먹고 지내는 일이 잦았어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서는 이혼을 요구해서 아이들 셋을 혼자 양육하는데, 양육비는커녕 이혼전 남편이 본인명의 자동차를 구입해 과태료, 세금 모두 갚지 않아 제가 지금 몇 만원씩 갚아가고 있어요(사례 13)

결혼초부터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경제적인 책임 회피로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가 반대해서 6학년이 될 때까지 참았는데 점점 알콜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아이 앞에서 폭행이 빈번해지고 아이가 이혼을 해서라도 아빠를 피하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사례 23).

남편이 돈을 벌지 않아 수급비로 생활했는데, 게다가 알콜중독인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례 18)

이혼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을 둘러싼 갈등이나 협상과정이 수반된다. 그러나 누가 자녀양육을 맡을 것인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은 겪지 않고 자녀양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쪽이 자녀를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그 역할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폭언이 심해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고 틱장애까지 왔는데 아빠에게 보낼 순 없죠(사례17)

애가 없으면 제가 버틸수 없을 것 같아서 양육비고 뭐고..다른 생각 해본적도 없어요. (사례23)

몇몇 사례에서는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맡을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애착과 양육 의지가 강한 여성이 양육비 등의 권리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맡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했어요. 성씨 변경도 합의했구요(사례19)

생부가 양육을 원치 않았고 나도 다시는 아이가 그와 마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친권 양육권 단독지정하고 교섭권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사례 20)

조사대상 한부모들은 폭력이든 외도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이혼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평등한 부부관계로 인해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피해는 자녀에까지 이르는 경험이고 가족해체의 과정에서 이 공동의 피해자들의 선택에서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한부모로서의 경제적 결핍, 양육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혼 전의 생활보다는 나으리라는 생각으로 자녀와 ‘같은 운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은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양육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는데 이혼 사례자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채 협의이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중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받은 사례는 없었다.

즉 양육권을 가진 것만으로 양육비 청구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 어차피 안줄 것이라는 것, 줄 돈도 없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양육비 청구의사마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이혼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법,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3, 김정란)

전 남편이 증견기업 회사에 일하고 있어 고수입이라 양육비 소송을 통해 월 30만원을 매달 받기로 했는데 재판후 한번 준 것이 끝이었어요.(사례17)

자녀양육을 둘러싼 어려움은 처음 합의과정에서보다 이후 한쪽이 자녀를 키우면서 더 첨예하게 나타난다. 자녀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해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자녀의 연령이 어려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경우, 전 배우자의 파산으로 인해 부채와 양육책임을 동시에 떠맡게 된 경우 등 극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혼시에 아이들을 아이아빠가 데리고 갔는데 보육원에 애들을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있어요(사례 25)

전남편이 바람난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양육권을 모두 내게 넘겼는데 애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돌보느라 낮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요. 애들이 자는 시간에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겨우 꾸려나갔지요.(사례13)

지금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전남편이 사업하다 사채 등 빚을 많이져서 이혼하고도 그 빚에 시달려요 작년에 교통사고까지 당해 일을 할수도 없고 애는 어린데 사는게 막막해요 (사례 24)

전배우자들은 대부분 양육에 참여하지 않을뿐더러 양육비도 전혀 분담하지 않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쪽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헤어진 배우자의 대부분이 자녀양육 공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혼전의 부채까지 양육부모가 떠안고 있는 경우도 있어 자녀양육비 청구나 이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미혼한부모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되는 핵심적인 동기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 생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주변에서 조차 환영받지 못한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도 혼자 결정했어요. 내가 책임질 일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사례1)

자기자식이 아니다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맞기도 하고..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유산기가 심해 병원에 갔는데 “살려고 빌버둥 치고 있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옆에 있어 준 아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이기에 누구 탓하지 않고 더 행복한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해요(사례6)

임신임을 알게 됨과 동시에 외면당한 아들을 엄마조차 외면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생명이고 선물인데.. 지켜주고 품어주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사례 7)

미혼한부모들은 가족형성에서부터 주위의 외면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사별이나 이혼한부모들과는 다른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다.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은 철저히 혼자서만 감당해야하는 몫이기 때문에 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누가 맡아줄 사람은 없고 아이랑 살려면 돈을 벌어야하니가 너무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아이가 아플 때마다 회사일을 내팽기치고 병원으로 달려가면 쏟아지는 눈초리가..그래도 다른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어쩔수가 없어요(사례7)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 했어요. 아이를 인정해주지 않으셔서 부모님과도 단절된 경험이 있어요 (사례 2)

출산과정에서도 전적으로 홀로 결정하고 감당해야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경제적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기 때문에 미혼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결정까지의 위기상황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도 절실해 보인다.

출산시 출산비용을 혼자부담 해야하는데 그 비용도 어마어마했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저귀, 분유값 감당하기도 힘들었고 한순간 한순간이 위태위태했어요(사례7)

출산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위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위기지원이란게 있다는 걸 알게된 것도 수소문해서 겨우 알게 되었어요. 미혼모라고 받는 눈총도 매서운데 지원이나 혜택을 알아서 찾아야하는게 너무 힘든 거에요.(사례8)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함께 미혼모자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2) 생활실태 및 어려움

① 경제적 실태와 어려움

한부모 중에서도 모자가족 가구주들은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이, 준비없이 가구주가 된 경우가 많다. 즉 한부모가 되기 이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부모가 됨과 동시에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혼이나 별거 한부모의 경우도 양육은 대부분 여성의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 홀로 자녀양육과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부분 일용직이나 서비스직 등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부모들은 생계유지와 양육, 살림을 혼자해야되는데 아이 기준으로 직장을 구하다보니 근로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소득도 낮고.. (사례 20)

아이가 어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학교에 있을 시간에만 일하기 위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어요. (사례1)

한부 역시 한부모가 되면서 가사 및 자녀양육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가구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가족특성을 고려한 시간대와 지원내용을 고려한 가사 및 자녀돌보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수급자로 턱없이 모자라는 수급비에 생활비도 모자라고 일자리를 구하자니 월급은 작은데 일을 하게 되면 수급비가 안나오잖아요. (사례 6)

〈사례6〉과 같이 일과 양육을 철저히 혼자 책임지는 한부모가 양육해야 하는 미취



학 자녀가 있다면 자신의 월급이 대리양육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 활동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수급자로 남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탈수급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급상태의 한부모들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또한 수급자상태로 머물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지원 기준인 가구소득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기초수급비로 생활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어떤식으로 책정하는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해요.
150만원을 벌어도 실수령액은 120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냥 수급받는 것 보다 못한 거예요.
한 20~30만원 더 받는다고 하루 종일 일해도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는 돈까지 하면 오히려 더 생활이 안되는 거죠 (사례 19)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하면 수급자나 한부모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빚을 가지고 이혼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2교대 근무를 하는데 급여가 많다고 모든 지원에서 탈락되었어요. 급여가 많아도 부채를 고려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사례 12)

남편이 사망하고 아파트가 큰 아들 앞으로 상속되었는데 미성년자라서 매매가 안되요. 장애있는 둘째 때문에 자유롭게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재산이 잡혀 한부모 지원이 통 안되는 거예요. 겨우 버는 돈 100만원으로 생활유지하고 있어요. (사례 10)

한부모에 대한 현재의 다양한 지원이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불황속 경제적 자유로 인한 한부모가구 형성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한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자산, 소득 기준의 현재의 지원이 한부모들의 자립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참여 지원을 위한 취업교육 역시 한부모가구주에게는 현실적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들은 대부분 장기간이거나 주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가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지만 이젠 생활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하려면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어려워요. 직업교육을 할 때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지원이나 방안이 있어야 직업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뿐 아니라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혼자 양육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직업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을 하지요. 지금 같아서는 하루 벌어 살거나 수급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례 16)

야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개설과 교육수강 시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지원체계,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취업교육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자녀양육 실태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함께 돌볼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만 한 살이지만 돈을 벌어야하니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요. 어떤 곳에는 한부모 엄마라고 아이를 차별하기도 하고..아이가 폐렴이나 수족구 등으로 아프면 어린이집에 보낼수 없으니 회사를 빠지고 돌봐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요. (사례7)

자녀가 미취학 상태일 때는 어린 아이를 홀로 방치할 수 없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지만 취학 이후에도 보호자 없이 자녀들만 집에 두고 일을 해서 자녀의 생활습관 학습부진 등의 문제로 고민을 겪는 사례들이 많다.

교대근무를 해야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초등학생인 둘째는 혼자서 게임하거나 만화를 그리며 놀고 있어요. 고학년일수록 방과 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지 않으려 해서 홀로 방치하는게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주 이용자가 저학년이고 고학년 자녀들이 가면 수준별 수업이 아니어서...(사례 12)

한부모 자녀의 학년에 따른 대상 수준별 수업내용을 구분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고학년 자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녀가 취학하게 되면서부터는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가구주들이 많았으며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부터는 사교육에 참여 못해 자녀의 성적 부진이 걱정된다는 사례가 많다. 또한 부모가 일을 위해 집을 비웠을 경우 사교육을 받지 않고 집에 혼자 남겨진 청소년의 돌봄 공백, 그로 인한 탈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설문조사에서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참여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한부모들은 그로인해 자녀학업이 부진해지는 것에 대해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비용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사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소득이 적어서 사교육은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아이 성적이 많이 뒤쳐졌는데 학교에서 방과 후를 하지만 별 효과가 없고 한부모들이 비용 때문에 접근 할 수 없는 사교육부분을 비용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해요. (사례23)

아이들 때문에 저녁에 일을 나가는데 내가 없을 때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하고 있어 걱정되요. 학원에 보내고 싶지만 돈이 없어 보내지 못해 마음이 아파요(사례 25)

남성한부모의 경우, 이성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과 익숙하지 않은 가사일 병행 등 고유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한부가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부모의 경우 한쪽 부모의 부재로 성별이 다른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 경우 성장에 따른 정서적인 부분은 물론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부모역할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흔 후 자녀셋을 양육해야했는데 아이를 돌봐야하는 문제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부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 경우는 딸이 있는데 엄마의 공백을 많이 느껴요. 성별이 다르니까 아빠로서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자아이니까 신체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 접근하기도 어렵고, 엄마라면 그래도 남자아이도 가능하지만 아빠는 어려워요. 남자 한부모가 겪는 일 반적인 느낌일거에요. 자녀와 성별이 다름에 따른 어려움 이에 대해 상담과 조언, 진로문제,

이성문제에 대해 커버해주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례 26)

성별이 다른 남자아이는 목욕탕도 같이 가줄 수 없고 아이의 심리 정서적 부분을 다루기 힘들어요. 한부모의 입장에서 성별이 다른 자녀를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해요 (사례 16)

대다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한부모는 한쪽 부모 부재로 그 정도가 가중되고 특히 성별이 다른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 자녀발달에 따른 가족상담이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③ 주거 실태

주거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전세임대, 부모와 동거, 시설거주 등 다양했는데 자가의 경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부모로 생활하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부채가 발생하여 경제적인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사는 집은 제 형편보다 넘치는 집이에요. 지원에서도 탈락되고, 집을 팔고 형편에 맞게 이사를 가야되는데....(사례 10)

많은 한부모들에게 전세나 월세 등의 주거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는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지만 수혜를 받기까지 조건이 까다롭고 혜택이 최장 10년까지로, 한부모들이 이 기간 동안 주택마련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LH전세자금으로 이사 가려다 여러번 거절을 받았어요. 대부분 집주인들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당첨되었다는 기대도 잠시였고 상처만 커요.

LH전세임대로 사는데 월세로 살 때보다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3년이 남은 상태에요. 계약기간 이후 또 걱정되는 거지요. 하루벌어 어렵게 지탱하는 현재 생활로써 아무런 방안도 없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사례 16)

전세임대로 다행이 주거는 해결되어도 언제 이사를 해야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너무 고맙고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 지원금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 너무 낮고 기한이 있어서 큰 도움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례 19)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당장의 주거비 마련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나 퇴소전까지 자립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두려움과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시설이 있어 자녀의 통학, 출퇴근, 병원진료, 문화생활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사례21, 22, 23, 24)

무상주택 3년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3년 동안 돈 모아서 나가기가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자립 하려면 5년~6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사례 22)

미혼한부모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보인다. 자가, 전세까지 다양한 이혼이나 사별한부모와 달리 미혼한부모의 경우 임대전세나 부모와 동거 상황이 아닌 경우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월세의 상황도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 미혼모는 주변에서 '환영받지 못한 양육'을 결정한 사례로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와의 동거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④ 사회적 관계

대부분의 사례가 한부모가족 형성요인과 무관하게 사회적 편견과 그로인한 고립감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사별한지 꾀 되었으니 애인 없냐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스스로 위축되고 우울해서 속마음을 감추고 있지요.(사례 10)

생활이 힘들다보나 따로 사람 만날 여유도 없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혼이 죄도 아닌데 혼자 자녀를 키운다는 편견, 특히 집주인이나 직장동료의 편견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례 12)

사회적 관계가 거의 고립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래도 제가 한 몸 받는 편견이나 수근거림은 괜찮은데 편견이 아이들에까지 영향을 줘서 아이들의 자신감이 상실되는 것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사례 24)

사회적인 편견은 특히 미혼모에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미혼모는 가족들 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를 겪게 된다.

아이를 낳기로 했을 때부터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쫓겨났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했고 그래서 혼자 산부인과에서 외롭게 아이를 낳았어요. 세상과 고립된 기분.. 금전적으로도 어려운데 정신적으로도 최악인 상태가 허다했죠(사례2)

혼자 아이 키우는거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싫어요. 직장에서도 친구조차도 밥은 꼭 자기가 사줘야한다고 보고..집 주위 분들에게는 절대 말 한해요 신랑은? 물어보면 얼버무리죠(사례 7)

특히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고 주변의 시선을 피해 사회적 관계망을 닫고 사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주변의 지지체계가 형성되지 않아 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의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가족구성 및 생활계획

대부분의 사례자들은 재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미혼한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만 집중하여 살겠다는 생활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자녀의 생부에게서 상처를 받은 상황이기에 남성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보이며 혼자의 결심으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기에 어떠한 유형의 한부모가구주들보다 자녀 대한 책임감과 그로인해 향후의 생활이 자녀에게 집중되어있다.

결혼 생각 절대 없어요.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남자라는 단어 자체가 싫어요(사례 1)

결혼은 어려운 일이고 신중해야겠어요. 아이와 지금도 행복하고 스스로 더 당당해져서 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사례2)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 사례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고’,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서’를 이유로 대답하였다.

혼자서 너무 힘들어 재혼하여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해결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제일 중요 하지만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 저도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노후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사례 13)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재혼얘기가 나오면 하지 말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커서 나를 이해해주면 재혼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크면 또 제인생도 있고 저도 좋은 사람과 잘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사례 18)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한부모가구 구성별 결혼의사를 살펴보면, 모자가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43.63%)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지원유형 별로도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법정/차상위 가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가 각각 44.9%,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소득수준 역시 월평균 100만원 미만가구에서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면접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이 되었듯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모자가구의 결혼에 대한 욕구는 향후 재혼가족이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게 한다.

4) 정책욕구

전반적으로 주거지원과 양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드러나고 있다.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와 자녀양육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주거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생활비가 감소되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임대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현재의 임대기간 연장과 전세금 상향을 기대하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역시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주거문제가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부모 주거시설을 자립기간이 마련될 때 까지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할 것이라는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세임대 서비스는 고맙고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 지원금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 너무 낮아서 괜찮은 환경을 찾기 힘들어요. 기간도 늘렸으면 좋겠구요(사례19)

지금은 시설에 있어서 다행이지만 나가면 당장 주거가 제일문제인데,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21)

양육비를 12세미만에서 19세까지 늘려주었으면 해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원을 못보낸다고 해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사례9)

양육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12세 미만까지로 한정된 양육비 이외에 미성년자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양육을 병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매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현실화와 생활습관 학업성취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례자들 대부분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습득이 수월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지원이 있으면 홍보를 좀 신경써주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대상이 되는데 놓치지는 않을까 늘 찾느라 바쁘고 홀로 알아보는게 맨땅에 혼자 헤딩하는 느낌이에요(사례 2)

어디가서 생활에 대한 상의를 할수 없어서 사례별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담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9)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업정보나 사업의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한부모 가족들이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많이 알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맞는데 현실은 내가 모임에서 얻은 정보나 주변사

람에게 어렵게 물어물어 발견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그런 서비스는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이 더 많이 알아서 우리들에게 서비스를 찾아주는게 맞지 않나요? (사례 10)

주민센터든 시청이든 도청이든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 신청 가능한 것이 있다면 문자 같은 걸 이용해 정보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도가 있어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해당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주면 좋겠어요.(사례 14)

한부모 지원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카달록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했으면 합니다(사례 26)

특히 한부모가구주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은 자조모임과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얻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오히려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대응에 대해 실망하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조모임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대가 높은 한부모나 남성 한부모가구주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보부재로 놓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 사업대상에 대한 문자서비스나 정책안내 브로셔 등 방식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담당자들의 한부모가족 사업 관련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자조모임에 만족도를 드러내며 이러한 지원들이 더 강화될 필요성도 토로하였는데, 이 정책만족도와 욕구는 미혼한부모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미혼모들은 부모님이 가까이 계셔도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고 고립된 느낌이랄까? 이런 엄마들이 자발적이고 원활 때 편안한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거점기관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처럼 상담과 아이양육 관련 조언도 해주시고..(사례2)

관공서에서 좋지않은 시선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아이를 책임지고 살려는데.. 그런 태도에 상처를 받지요. 심리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었으면 해요.(사례 4)

새생명에서 같은 처지 엄마들과 친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보를 알 수 있어 도움도 많이 되고..(사례 7)

심리치료나 자조모임의 수혜를 받은 사례는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일반부모들보다 높은 한부모가구주를 위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가구주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례관리와 심리적 지원, 자조모임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심층면접조사 요약 및 시사점

1) 한부모형성과정과 양육부담

한부모의 가장 큰 이슈인 양육문제에 대해 대상별로 양육문제 해결과정을 살펴보면 사별가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우자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남편, 아빠에 대한 ‘근본적 결핍’을 깊이 인식한다는 면에서 이혼이나 미혼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혼의 주원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다툼, 폭력과 폭언, 알콜릭, 외도, 유기, 시댁과 갈등 등 다양한데, 이혼인 경우 사별과 달리 양육을 둘러싼 갈등이나 협상과정이 수반되지만 대부분 양육을 두고 첨예한 갈등은 겪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몇 사례는 전 배우자가 공공연히 아이를 맡을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애착과 의지가 강한 여성의 전적으로 양육을 맡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폭력이나 외도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이혼에 이르기까지 불평등한 부부관계의 피해를 경험했었는데 가족해체의 과정에 공동의 피해자들의 선택에서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혼 전 생활보다 나으리라는 생각에 이혼을 선택했고 양육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양육권을 가진 것만으로 양육비 청구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 어차피 안 줄것이라는 이유, 줄 돈도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또한 헤어진 배우자의 대부분이 자녀양육공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혼전의 부채까지 양육부모가 떠안고 있는 경우도 있어 자녀양육비 청구나 이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미혼한부모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핵심적 동기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지만 가족형성부터 주위의 외면에서 시작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다. 양육도 철저히 혼자 감당해 이혼, 사별가족보다 더욱 어렵고 출산과정에서부터 홀로 결정하고 감당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졌다. 미혼부모의 위기상황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사회적 편견해소,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2) 경제적 어려움

홀로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일용직이나 서비스직 등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부 역시 경험하지 않았던 가사와 자녀양육과 직장을 병행해야하는 어려움이 많다. 가구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가족특성을 고려한 시간대와 지원내용을 고려한 가사 및 자녀돌보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조건에 맞추기 위해 일을 하지 않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월급이 대리양육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할뿐더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하면 수급자나 한부모에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이 없어져 생활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지원이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자산 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불황속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한부모가구 형성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 근로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한부모들이 정작 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취업교육 역시 장기간이나 주간에 진행되어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야간 진행 프로그램 개설과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수강시 자녀 돌봄 서비스 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3)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가 미취학 상태일 때는 자녀를 홀로 방치할 수 없어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지만 취학후에는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가구주가 많았고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성적부진과 탈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녀의 학년에 따른 대상 수준별 수업내용을 구분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고학년 자녀를 위한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남성한부모의 경우, 이성의 자녀를 돌봐야하는 부담과 익숙하지 않은 가사일 병행 등 고유의 어려움이 있어 한부가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역시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는 한쪽 부모의 부재로 성별이 다른 자녀들이 청소년기 접어들 경우 부모역 할의 어려움이 크다. 자녀 발달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가족상담이나 정서적 지원도 필요하다.

4) 주거,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많은 한부모들에게 전세나 월세 등의 주거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는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지만 수혜를 받기까지 조건이 까다롭고 혜택이 최장 10년까지로, 한부모들이 이 기간 동안 주택마련을 위한 자립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당장의 주거비 마련에서는 자유롭지만 퇴소전까지 자립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두려움이 존재했다.

미혼한부모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보인다. 자가, 전세까지 다양한 이혼이나 사별한부모와 달리 미혼한부모는 임대전세나 부모와 동거 상황이 아닌 경우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월세의 상황도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보인다.

경제적 부담, 양육의 어려움 주거문제로 인한 어려움 이외에도 대부분의 한부모들은 사회적 편견과 그로인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고 주변의 시선을 피해 사회적 관계망을 닫고 사는 사례가 많아 한부모 가족의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정책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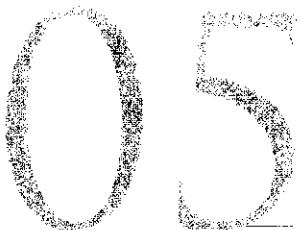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주거지원과 양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드러나고 있다. 전세임대는 기간연장과 전세금 상향을 기대하고 양육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현실화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돌봄공백을 매울 수 있도록 생활습관과 학업성취도 보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례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습득이 수월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사업대상에 대한 문자서비스나 제도 안내 브로셔 등 다양한 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자조모임에도 큰 정책욕구를 나타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일반 부모들보다 높은 한부모 가구주, 그리고 자녀를 위한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원과 자조모임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



정책 제언



I. 충북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전략 목표

II. 이행 과제

제5장 정책 제언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가정 경제와 자녀양육 및 교육이며 정책욕구 역시 생계비지원과 양육비·학비보조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다 있다. 이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이 한부모와 그 자녀를 빙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현재 저소득에 맞추어진 지원정책은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복지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슈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로써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 수용하여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충북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전략 목표

1. 지역특성과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적극적 정책개발

전국적인 평균과 비교하여 충북 한부모가구주의 학력수준은 낮고 특히 여성가구주의 학력수준은 남성 한부모가구주 보다 현저히 낮아 전국평균보다 충북의 한부모가구, 그리고 충북내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 한부모가구의 생활수준이 더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는 1차 설문대상을 저소득가구주로 설정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엄밀한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나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해보더라도 충북 한부모가구의 월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시설양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비용문제로 인해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못하는 한부모들이 많고 반면 직접양육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돌봄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부모 정책을 개발할 경우 이러한 지역의 한부모가구 특성을 적극 반영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충북 한부모가족의 상대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한부모 정책 및 서비스는 자체적인 정책개발이 미진한 상황이다. 저소득이나 시설 한부모에 집중된 지원 역시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가는 것 외에 자체적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지원 확대는 예산의 문제를 수반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타 지자체의 자체적 서비스의 경우 여성발전기금 등 조성된 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기금의 이자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예산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충청북도 역시 이와 같은 여러 방법의 예산 확보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자체적인 정책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접근

현재 충북의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앙정부 정책 틀에 한정된 저소득한부모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 중심의 운영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이 겪는 문제는 다양하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요건을 떠나 사별, 이혼, 유기라는 상황 자체만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가족관계 악화 및 가족기능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심리지원이나 정서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혼자서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사례관리나 부모역할 교육도 긴급히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소득수준이 부합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있다. 특히 충북에는 전반적인 가족위기에 대처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비수급 한부모 가족은 사실상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시설 모자가족 중심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부자가구 또한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향후 충북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복합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대상을 저소득 모자가구에서 부자가구로, 비수급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정책의 범위 역시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서 정서 심리적 지원, 사회적 편견해소 사업,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넓혀가야 할 것이다.

II. 이행 과제

1. 한부모가족 지원기관 인프라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충북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곳(생활시설 3, 상담소 1), 건강가정지원센터 4곳이 있지만 주로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은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따라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센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매우 미흡하며 특히 취약가족역량강화, 심리 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청주, 충주, 제천, 진천에만 설치되어 있어 최소 권역별 거점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흔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형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해체에 대한 예방차원의 가족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역배분을 고려하여 점차 증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4개소 외에도 남부권역에 적어도 1개소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국비확보 가능성이 낮은 시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이동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북내 전체가구수 증가에 비해 한부모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나 울산시와 같이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권역별 센터를 운영중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는 시설 한부모 지원을, 권역별 센터는 재가 한부모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북은 2012년 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센터운영에 대한 조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충북의 현 한부모가족 정책이 저소득이나 시설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복지시설 역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조례를 개정하고 한부모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서비스 대상 및 정책 영역 확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 기관 간 또는 실무자 간 네트워크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3곳의 생활시설에는 시설입소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새생명지원센터에서는 미혼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각 읍면동에서는 재가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분절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이들간의 소통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연계지원이 어렵다. 현재 충북에는 한부모를 위한 시설이나 인력,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유관 업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단체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시설이나 대규모 예산이 구축되지 않더라도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 다양한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직업훈련 교육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은 제도 자체의 이용률이 낮고 만족비율도 낮아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불만족 이유는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과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훈련이 장기간 교육 중심일뿐더러 주간에 진행되어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자녀양육과 가정경제를 흘로 책임져야하는 한부모가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할 수 없다. 현재 한부모가구주 고용지원을 위해 취창업 의지가 있고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복지자금대여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어 장기간의 교육기간동안 오히려 가계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진행시 훈련기간 동안 ‘자립지원금’ 명목으로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기간동안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의 생계와 양육을 홀로 담당하는 한부모의 경우 주간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 강좌, 인터넷 강의 등을 병행하는 방법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어릴 경우 야간강좌도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 과정 중에 생기는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직업훈련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역내 기관간 네트워킹 및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3. 양육지원 다양성 제고 및 부모역할 교육 강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한부모의 양육의 어려움도 다양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인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한부의 경우 자녀양육이나 교육문제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미혼부모의 경우 가족과도 단절된 채 홀로 부모역할을 해야함에 어려움이 극심했다. 이는 자녀의 연령 및 발달단계, 한부모가구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고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자녀의 영·유아기에는 양육,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취학 아동기에는 교육서비스를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부모들이 교육비 부족으로 중고등학교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고 이에 성적부진과 탈선의 가능성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서비스도 필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등 한부모가구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원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과 교사의 상황, 자원 등이 제한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힘들고 대상이 저학년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생 멘토 등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대학생을 각 가정으로 파견하여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지도와 연계한다면 학

습동기를 유발하고 탈선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구는 한쪽 부모의 부재로 성별이 다른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역할의 어려움이 크고 남성한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대화의 어려움이나 관계 형성 측면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발달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가족상담과 부모역할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대안적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돌봄공백의 최소화

한부모가구는 자녀양육에 있어 기관이용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직접 양육이 높고 돌봄 공백의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이용시에도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시설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시설보육이 장시간 근로나 일시보육 등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특히 본 조사결과 초등학생자녀의 경우 돌보는 사람없이 혼자 방치되는 사례가 21.3%나 되어 돌봄공백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한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이 역시 비용 및 이용시간 등에 제한이 있어 접근성의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이용시 비용을 경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긴급 상황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는 양쪽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상황시 항상 돌봄공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간제 또는 탄력적 시간을 고려한 자녀돌봄 기관 또는 서비스가 개발된다면 돌봄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차적 탈수급 진행방식 도입

한부모가구주가 취업하여 갑자기 탈 수급할 경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저소득 한부모 가

구주들이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거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등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탈수급계획 역시 갖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복지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처음부터 수급을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차등적으로 차감을 시켜 한부모가족의 탈수급과 자립의 기회, 근로의욕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즉 수급자에서 바로 탈수급자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수혜를 축소하는 연차적 탈수급 진행방식으로,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 아닌 자녀학비 지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충청북도 자체 사업의 경우 완전한 탈 수급까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당장의 비용을 초래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부보다는 한모,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한부모에게 비근로 상황과 복지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취업하게 될 경우 소득상황에 따라 바로 탈수급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육비나 아이돌봄서비스, 주거비 지원 등에 인센티브를 주어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6. 건강지원 및 정서 심리적 지원 강화

한부모의 우울감 증상,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낮으며 특히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모자가구일수록 우울감 경험이 낮다. 반면 한부모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매우 낮게 나타나 저소득 한부모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위기가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할 것을 제안한다.

한부모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고립감을 경험하며, 특히 자신의 차지에 비관하고 주변의 시선을 피해 사회적 관계망을 닫고 사는 사례가 많아 상담, 자조모임 등 정서 심리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등은 시설 퇴소 후 혹은 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자조모임이나 지역 상담기관 연계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담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프로그램의 경우 여러 사례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아존중감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설 자체 프로그램 외에도 지자체 지원 또는 기업 후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7. 복지정보 문자서비스 및 안내 브로셔 제작, 배포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사례자의 대부분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습득이 수월하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한부모가구주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은 자조모임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얻는데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연령대가 높은 한부모나 남성 한부모들은 정보부재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

주요 통신사와 MOU를 통해 한부모가구주가 할인된 가격으로 문자서비스를 이용토록하여 지원 대상자가 문자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을 인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내용을 소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어느 기관 혹은 어느 부처에 연락해야하는지 등이 기재된 서비스 안내 브로셔를 제작하고 배포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한부모가 스스로 얻은 정보를 공기관에 문의했을 때 사업담당자들이 오히려 서비스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실망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이러한 안내 브로셔를 한부모 지원 기관은 물론 각 읍면동에 배포하여 한부모가족이 상담을 왔을 경우,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8. 주거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에 대한 장기적 전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주거문제는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안전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토지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기관 퇴소 한부모들에게는 현재의 기관입소 기간내에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퇴소 후에 일정기간을 두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9.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가족이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여전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한부모들은 직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편견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편견에 의해 스스로 사회적 관계망을 닫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편견에 의한 피해는 특히 자녀와 관련된 생활, 즉 보육시설, 학교 등의 영역에서 심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부모는 물론 그 자녀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자녀들의 가치관과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교육현장의 편견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유치원장, 초중학교장, 전문직을 대상으로 다문화 자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하여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강사양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책개발에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2, 「사교육비조사」

김숙이 외, 2012 「충청남도비혼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은지 외, 201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정란, 2013,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김현지 외, 2011, 「부산시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문은영 외, 2010,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백경미, 2013, 「충북 여성·가족정책 도민 수요조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백경미, 2011, 「충북 성인지통계」,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여성가족부, 「2014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이정의 외, 2012 「경기도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개선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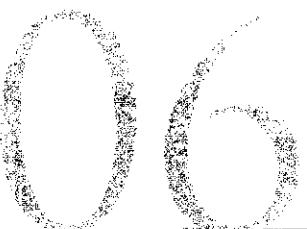
충청북도, 2014, 여성정책관실 내부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홍미희 외, 2012, 「인천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서혜정 외, 2010, 「경기도 미혼모부자 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4



부 록

설문지

심층면접내용

충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충북여성발전센터는 여성과 가족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충북 유일의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금년도 연구사업으로 『충북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의 변화 유형과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북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귀하게서 응답해 주신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 34조에 따라 통계처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는 절대 보장됩니다. 이 조사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바쁘시더라도 한부모가족 지원방안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소장 유영경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지복동 355-17)

연구책임 : 백경미(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연구개발팀) 문 의 : 한근진(043-220-6471-3) 팩스 : 043-220-6479

■ 응답자 일반현황(인구학적 특성)

<input type="checkbox"/>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input type="checkbox"/>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 졸	③ 대자~ 대졸	④ 대학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거주지역	① 청주시	② 충주시	③ 제천시	④ 청원군	⑤ 보은군
	⑥ 영동군	⑦ 진천군	⑧ 옥천군	⑨ 괴산군	⑩ 증평군
	⑪ 음성군	⑫ 단양군			
<input type="checkbox"/> 기초수급권자 여부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비수급자(일반)		
<input type="checkbox"/> 가족한달 평균수입	정부, 자차구 및 기타 외부 지원금을 포함한 소득을 모두 합해 한달에 () 만원)				
<input type="checkbox"/> 함께 살고 있는 가족	① 자녀	② 나(배우자)의 부모	③ 나(배우자)의 형제, 자매	④ 나(배우자)의 친인척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된 기간	() 년 () 개월				
<input type="checkbox"/> 자녀의 연령	① 첫째자녀(만__세)	② 둘째자녀(만__세)	③ 셋째자녀(만__세)		
	④ 넷째자녀(만__세)	⑤ 다섯째자녀(만__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	① 배우자 사망	② 배우자로부터 유기	③ 이혼	④ 기출 또는 배우자 생사불명	
	⑤ 교도소	⑥ 미혼모·미혼부	⑦ 기타		
<input type="checkbox"/>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1. 한부모로서의 생활과 사회·심리적 상태

1. 귀하가 현재 한부모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힘든 사항을 순서대로 기입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① 경제문제 ② 정서문제(정신적 외로움 등) ③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 ④ 건강문제 ⑤ 가사노동 문제 ⑥ 주거문제 ⑦ 대인관계
- ⑧ 주위의 시선 ⑨ 기타()

2. 향후 재혼(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① 재혼(결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② 자녀들에게 지장이 없으면 재혼(결혼)하고 싶다
- ③ 상대의 조건에 따라 재혼(재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④ 친구나 애인 생각은 있으나 재혼(결혼) 할 생각은 없다
- ⑤ 재혼(결혼)할 생각이 없다 ⑥ 기타

3. 전 배우자(아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최근까지 정기 지급(월 만원) ② 최근까지 부정기 지급(월 만원)
- ③ 일시 지급(월 만원) ④ 과거에는 받았으나 현재는 받지 못함(월 만원)
- ⑤ 받은 적 없음

4. 귀하는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과거에 비해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지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과거에 비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과거에 비해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음	과거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는 편	과거에 비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음	해당사항 없음
가정경제					
자녀양육 및 교육					
직장일과 집안일 병행					
사회적 편견					
대인관계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					
건강					
취업					
자녀와의 관계					

5. 귀하는 한부모가족이 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각 항목을 읽고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차별 없음	별로 차별 없음	차별이 있는 편임	매우 차별심함	해당사항 없음
가족관계에서					
친구와의 교제 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자녀의 친구관계					
관공서 등에서					

2. 가족관계와 부양에 관한 사항

6. 같이 살고 있는(양육하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명)

미취학자녀가 있는 분만 응답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만 응답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만 응답
<p>7. 낮에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p> <p>① 본인 ② 본인의 부모 ③ 전(현) 배우자의 부모 ④ 친지, 이웃 ⑤ 놀이방, 어린이집 ⑥ 사회복지기관 ⑦ 각종 사설학원 ⑧ 돌보는 사람없음 ⑨ 기타()</p>	<p>7.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p> <p>① 본인 ② 본인의 부모 ③ 전(현) 배우자의 부모 ④ 친지, 이웃 ⑤ 놀이방, 어린이집 ⑥ 사회복지기관 ⑦ 각종 사설학원 ⑧ 돌보는 사람없음 ⑨ 기타()</p>	<p>7. 자녀의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p> <p>①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다 ② 갖은 질병·질환으로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 ③ 학비를 댈 수 없거나 당장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 ④ 학교생활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 ⑤ 기타()</p>
<p>8. 만약 돌보는 사람(혹은 기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를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p> <p>①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 ② 거리가 너무 멀다 ③ 비용이 너무 비싸다 ④ 아이를 성의없이 돌본다 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⑥ 저녁을 제공하지 않는다</p>	<p>8. 만약 돌보는 사람(혹은 기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를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p> <p>①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다 ② 거리가 너무 멀다 ③ 비용이 너무 비싸다 ④ 아이를 성의없이 돌본다 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⑥ 저녁을 제공하지 않는다</p>	<p>8. 딱의 자녀 중 사교육을 받는 자녀가 있습니까?</p> <p>① 있다 ② 없다</p>

9.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비 부족 ② 대화 단절 ③ 절대적 시간부족 ④ 주변환경의 불량, 비행
 ⑤ 자녀의 반항 ⑥ 학습지도 부족 ⑦ 자녀의 건강 문제 ⑧ 기타()

10.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곳에 “○” 표해 주십시오.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2)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는 편이다					
3)자녀가 방과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4)자녀가 가끔 늦은 시간에 귀가해서 걱정스럽다					
5)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걱정스럽다					

11.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순으로 기입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①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 및 정서프로그램 ② 자녀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③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가사분담을 위한 가사지원 프로그램
 ⑤ 직접적인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수당 확대 ⑥ 기타()

3. 취업, 소득 등 경제상태

12. 귀하는 현재 일(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만 응답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만 응답
<p>13. 현재 하시는 일(직업)은 어떤 형태입니까?</p> <p>① 상시고용(정규직 사원) ② 임시고용(1년 미만 계약된 임시직 사원) ③ 일용직(일거리가 있을 때만 함) ④ 자영업(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 가게, 노점상, 가내수공업 등) ⑤ 가게나 상점 등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⑥ 무급가족종사자(식구가 하는 일 돋기)</p>	<p>13.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십니까?</p> <p>① 부모의 도움 ② 형제의 도움 ③ 이웃의 도움 ④ 종교기관의 도움 ⑤ 사회단체의 도움 ⑥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도움 ⑦ 기타</p>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만 응답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만 응답
<p>14. 현재 직업에 만족하십니까?</p> <p>① 네 ② 아니오</p>	<p>14.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②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④ 임금이 적어서 ⑤ 일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어서 ⑥ 일을 구하고 있지만 구해지지 않아서 ⑦ 기타()</p>
<p>15. 현재 직업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p> <p>① 저임금 ② 일거리가 일정치 않음 ③ 주위 사람의 편견 ④ 가사와 병행 ⑤ 자녀양육 문제 ⑥ 불안정한 고용 ⑦ 기타()</p>	<p>15. 앞으로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p> <p>① 전혀없다 ② 별로없다 ③ 조금있다 ④ 많이있다</p>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받아보신 분들만 응답
<p>■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p> <p>① 매우 불만 ② 약간 불만 ③ 그저그렇다 ④ 약간만족 ⑤ 매우 만족</p>
<p>■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에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 ③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없다 ④ 교육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⑤ 교육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다 ⑥ 교육시간이 너무 길다</p>

16. 가족이 한달동안 생활하는데 현재의 수입으로 부족한 편입니까?
- ① 많이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그런대로 가능하다 ④ 충분한 편이다
17. 현재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식료품비 ② 의료비 ③ 주거비 ④ 공과금 ⑤ 교육비 ⑥ 부채
 ⑦ 기타()

4. 건강·심리정서 상태

18. 귀하의 현재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각 항목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보기에 “○” 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자주 우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중 만성질환으로 입원치료나 정기진료를 받아야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표시” 해주세요.

- ① 없다 ② 본인 ③ 자녀 ④ 부모 ⑤ 기타()

20. (문항 19에서 ②③④⑤응답자 응답) 현재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장 심하게 앓고 계신 분을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 | | |
|---------------------|---------------------|
| 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② 정기적으로 병원(보건소)에 간다 |
| ③ 심할 때만 병원(보건소)에 간다 | ④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
| ⑤ 약국에서 약만 사서 먹는다 | ⑥ 아무런 치료를 못하고 있다 |

5. 생활양식

2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거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임대아파트
 ⑤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척집 ⑥ 정부 전세자금 대출(국토해양부)
 ⑦ 공동생활가정 ⑧ 시설 및 기관 ⑨ 기타

22. 귀하는 평소 문화 및 여가 생활(TV시청 제외)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3. 귀하가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 ① 경제적 부담
- ② 양육·가사로 인한 시간부족
- ③ 건강·체력부족
- ④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 ⑤ 적당한 취미 없음

24. 귀하의 컴퓨터 사용능력 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못함
- ② 간단한 게임정도
- ③ 간단한 문서작성과 초보수준 인터넷
- ④ 인터넷을 보통 수준으로 함
- ⑤ 인터넷이 매우 능숙
- ⑥ 전문적인 지식과 활용능력이 있음.

6. 정책 만족도 및 수요

25. 다음은 현재 시행중인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및 서비스입니다. 이용유무와 만족도에 대해 답해주세요(각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이용유무			이용만족도				
	비 해당	과거에 이용	현재 이용	매우 불만족	불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자녀학비 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자녀교복비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아동양육비 지원(12세미만 아동 1인당 월7만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자립지원금 지원(양육비·경정고시·자립지원촉진수당)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겨울철 난방비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기관을 통한 미혼모 출산·양육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취약가족역량강화(건강·직업교육·일자리·법률문제 등 사례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한부모가족 상담(복지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주거지원(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취창업지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건강보험료 지원(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월10~30%경감)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26. 다음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중 귀하가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 | |
|------------------------------|-----------------|
| ① 생계비 지원 | ② 양육비 및 학비 보조 |
| ③ 파산회생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 ④ 전세용자금 보조 |
| ⑤ 임대아파트 입주 및 분양시 우선권 부여 | ⑥ 의료비 지원 등 의료혜택 |
| ⑦ 취창업 지원 | ⑧ 가사(비)서비스 지원 |
| ⑨ 심리상담 지원 | ⑩ 자녀학습 지도 |
| ⑪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 |
| ⑫ 한부모에 대한 사회편견해소 운동 및 홍보 | |
| ⑬ 한부모가족을 위한 건강, 법률 등 생활정보 제공 | |
| ⑭ 기타() |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설문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심층면접지

개인적 사항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현재 나이	세	<input type="checkbox"/> 현재 직업	
<input type="checkbox"/> 가족사항	자녀(명) 기타(명)	<input type="checkbox"/> 가족 월 평균소득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이 된 년도		<input type="checkbox"/> 주거형태	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			

심층면접 내용

① 한부모 가족 형성과정에 따른 어려움(경험을 예를 들어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사별인 경우 배우자 사망원인, 남은 가족의 어려움과 배우자 사망후 남은 가족의 상실의 경험, 자녀양육에서 특히 어려운 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이혼(별거)인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와 자녀양육책임(분담 포함)에 대한 합의 및 갈등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미혼부모의 경우 자녀출산까지 자녀생부(모)와 관계, 양육을 결정하게 된 동기와 그런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② 생활실태 및 어려움(일상의 경험을 예를 들어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②-1. 한부모가 된 이후 경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②-2.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과 양육(가사)를 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②-3. 자녀 양육 상황(자녀의 나이, 자신이 없을 때 돌보는 곳 등)과 어려움, 현재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도 말씀해주세요.

②-4. 주거상황은 어떠하신지 주거상황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총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②-5. 한부모가 된 이후 사회적 관계(부모, 직장, 친구, 이웃 등)는 어떠한가요?
한부모로서 겪는 편견과 고립감을 경험하셨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③ 정책수혜 현황과 욕구

③-1. 이용하신 정책 중 특히 도움되었던 서비스나 꼭 개선되어야 할 서비스가 있는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특히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③-3. 지원기관이나 관공서에 바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④ 향후의 생활전망

④-1. 재혼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④-2. 자신과 자녀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인지	수혜
자녀학비 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자녀교복비 지원		
아동양육비지원(12세미만 아동1인당/월7만원)		
저소득 한부모 복지자금 대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지원 (양육비·검정고시·자립지원촉진수당)		
겨울철 난방비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기관을 통한 미혼모 출산·양육지원		
취약가족역량강화(건강·일자리·법률문제 등 사례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한부모가족 상담(복지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주거지원(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직업교육을 포함한 취창업지원		
건강보험료 지원(소득·재산에 따라 월10~30% 경감)		

【면접자 기재사항】

• 면접일시 : 2014년 월 일

• 면접장소 :

• 추천기관 :

• 연락처 :

연구보고서 2014-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14년 7월 11일 인쇄
2014년 7월 14일 발행

발행인_ 유영경
발행처_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360-18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공원로 27(자북동 355-17)
tel. 043-220-6471~2 / fax. 043-220-6479
<http://woman.cb21.net>

발행등록번호_ 73-6430302-000031-01

ISBN_ 978-89-92023-29-0-23330

인쇄처_ 디자인세상 tel. 043)224-4235

